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61 1982년 6월 2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ne 28, 1982

JUN 2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George Street
FLOOR
TORONTO, CANADA

임금통제 움직임

트루도, 주수상들과 비상회의
우선 공무원 봉급인상 묶을듯

(오타와)트루도수상은 오는 30일(수) 주수상들을 비상소집,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을 협의한다.

트루도 수상은 28일밤 발표예정인 연방정부의 수정예산안을 놓고 주수상들과 임금통제책등을 협의한다.

이번 연방·주수상비상회의는 75년10월당시 물가·임금통제를 위한 비상회의후 처음이다.

75년과 마찬가지로 트루도 정부는 물가·임금통제를 위해 각주의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봉급인상부터 억제하도록 주수상을 설득할 예정이다.

연방수상은 국가비상시 연방공무원의 임금을 통제할 수 있으나 「국상비상시」의 판단은 연방·주수상 합의하에 결정된다.

윌렴·데이비스 온타리오 주수상은 "캐나다 경제를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연방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금통제책을 원하는 것은 11.8%(5월)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것이다. 트루도정부는 76~78년에 임금통제책을 실시, 물가를 2.3%(10.8%-7.5%) 잡는데 성공했으나 전반적 경제위축이라는 부산물을 낳았다.

임금통제책은 공무원및 국영기업체 직원(Public Sector)에게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일정선으로(6~7%예상) 묶고 일반기업들(Private Sector)는 자율적조정에 맡긴다.

한편 가장 공격적인 노조중의 하나인 우편노조의 잔·페로위원장은 "주수상들이 연방의 임금통제안을 받아 인다면 다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76년 당시 임금통제책에 묶인 공무원들은 일제히 1일간 불법파업, 항의했었다.

"平和的 정권교체엔 政黨·言論회복緊要"

(상항지사) 미국무성초청으로 방미중인 한영수의원(민한당)은 22일 한국의 평화적정권교체는 정당기능과 언론기능의 회복없이는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한의원은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양당이 국민의 신뢰를 모으기위해서는 민간정치인과의 대동단결로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한당이 올해부터는 자생력회복으로 발돋움을 하고있다고 밝히면서 지난번 청와대영수회담에서는 장여인사건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만큼 시원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한의원은 또 장여인사건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국정조사권발동으로 국민의 혹을 풀어 줄수있다고 밝혔다.

고려대생 태도 주목
김상협총장 총리취임

(서울25일=연합)25일 신임 김상협 국무총리서리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25일 중앙청에서 있은 신·구총리 이취임식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각오로 앞날을 위해 나가야 할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5개월21일만에 총리에서 물러나는 유창순총리는 "신임 김총리를 정점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유총리는 최근 사채스캔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신임 김총리가 총장으로 있은 고려대학은 보통 반정부 데모를 자주 해온 학교로서 학생들이 김총장의 입각 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대학가에서 고려대의 참여 없이 크게 학생데모를 벌이기는 어렵다.

◆ 금주의 행사 ◆

(6월28일~7월4일)

◆2일(금)~4일(일) 하오 7시30분 제1회 선교대회
주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강사: 김유식 선교사
곳: 충현교회(240 Manor Rd.E.)
연락처: 281-7772

◆3일(토) 상오9시 제1회 한국일보사배 어린이(리틀)야구대회
곳: Coronation Park야구장(CNE정문앞)
연락처: 533-2361

◆3일(토) 정오 제10회 런던한인친선골프대회
곳: Thames Valley Golf & Country Club (850 Sunninghill Ave. London)
연락처: (519)438-6644

◆3일(토) 하오8시 교민친선축구대회 주장회의
곳: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사무실 (미도파백화점 3층)
연락처: 752-6023(권성용)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어린이야구 5일후로
6개팀 출전,여자연령 1살높여

제1회 어린이(리틀)야구대회 참가팀이 연합교회, 침례교회, 한인교회, 천주교회, 통일어린이 야구단, 오샤와세종한글학교의 6팀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3개팀씩 A,B 2조로 나뉘어 예선리그전을 가진 다음 A조1위·B조2위, B조1위·A조2위가 각각 준결승을 치룬후 결승전을 갖는다.

24일 하오 7시 본사회의실에서 열린 감독자회의에는 본사 어린이야구대회 준비위원, 박재선 진행위원장, 정세용 심판및 각팀 감독(혹은 코치)들이 모여 대진표를 작성하고 경기운영방법 토의및 경기규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박위원장은 "작년부터 어린이야구대회를 꼭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야구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맨쉽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교육적인 면을 강조했다.

감독자 회의는 부정선수의 출현을 대비, 어느 팀에 부정선수가 발견됐을 경우 그 선수가 뛰었던 시합은 모두 몰수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선수자격은 7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로 못박았으며 다만 양해사항으로 여자어린이에 대해서는 1살 늘려 69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면 출전이 가능하게 했다.

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협회 경기규칙을 적용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인원도 제한, 후보까지 15명 이하로 선수명단을 제출하게 했고 명단에 없는 선수는 절대 출전못하게 했다.

박위원장은 손수 발췌 복사한 소프트볼 경기규칙을 각팀 감독및 코치에게 나누어 주고 중요규칙및 변경된 규칙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날 경기는 코로네이션파(CNE 정문앞)의 구장 2개를 사용하며 아침 9시에 시작, 첫 경기가 끝난후 10시 30분 입장식을 가진후 경기를 속개한다.

경기대진표

A조: 연합, 천주, 한인　B조: 침례, 세종, 통일

(정각 9시 시작)

	East 구장	West 구장
게임 1	연합-천주	침례-세종
-- 개회식 (10시30분) --		
게임 2	천주-한인	세종-통일
게임 3	연합-한인	침례-통일

◉준결승: A조1위 B조2위　B조1위 A조2위
◉결 승
◉심판명단: 박재선 · 정세용 · 윤호영 · 박세영 · 샌디박 · 조동식 · 조용덕

새 명인에 송병윤
본사바둑, 이세주 물리쳐

새 「명인」으로 송병윤(31)씨가 탄생했다. 본 토론토한국일보사 주최 제3회 명인전 바둑대회(주관 한국기원)에서 3년 연패를 노린 이세주 명인은 송씨에게 두 대국을 내리 패해 명인타이틀을 아깝게 내놓았다.

6월초 첫 명인전 대국에서 송씨에게 패한 이명인은 지난 19일 한국기원서 열린 2차대국서 집혹, 분전끝에 1집반차로 돌을 던졌다.

캐나다 최고의 아마7단 이씨는 컴퓨터공부(데이타·프로세싱)에 바빠 바둑에 몰두하지 못했다. 대국후 이씨는 "생각대로 안두어지더라"고 말했다.

한편 새 명인이 된 송씨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집에 바둑판도 없다는 송씨는 서울 한국기원의 아마4단. 78년 이민, 상점을 경영하느라고 불과 1개월전부터 기원에 나타났다. 국교때부터 시작, 한양공대를 졸업할때까지 바둑을 두었으며, 고교때 고교대항대회에 출전했었다.

이번 연례 바둑대회는 지난 5월22일부터 12차 리그로 벌어졌다. 전적은 다음과 같다.

◆명인전 대국
도전자 송병윤 2승
전 명인 이세주 2패

◆도전자결정전
1등 송병윤 2승
2등 신명철 1승1패
3등 배준기 2패

이덕희 윔블든 탈락
강호 에거에 2:1

윔블든테니스 2회전에 진출한 한국 유일의 프로테니스선수 이덕희양은 4번시드의 앙드레·예거(미국)에게 세트스코아 2:1로 져 탈락했다.

이양은 1회전에서 영국의 강호 글리니스·콘즈를 2:1로 물리쳤었다.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노래에 우정 담고"
한인Y 합창단,조촐한 발표회

토론토한인YMCA합창단(지휘 안병원)의 제1회 발표회가 지난 24일 하오8시 토론토 웨스트·앤드 YMCA 2층강당에서 후원이사등 약 10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조촐한 음악잔치로 열렸다.

안병원 지휘·김진숙 반주의 이날 레파토리는 유니폼을 입은 남녀단원 25명의 4부합창("희망의 속삭임"등), 유성순양과 김현주양의 2중창, 권혁일·이웅건·김승욱군의 남성3중창이었고 찬조출연으로 김진숙양의 피아노 독주, 서정양의 바이올린 독주, 연경희씨의 첼로독주, 송경란씨의 소프라노 독창이 있었다. Y합창단은 안교수 지휘밑에서 착실히 자라고 있음을 이날 여실히 보여줬다. "왜 좀더 넓고 음향시설이 좋은 곳에서 정식 음악회를 갖지 않았는가?"하는 의문점을 청중들에게 준 Y합창단은 2년전 창단, 매주 1회씩 연습해 왔으나 현재 창단 멤버는 4명뿐이다. 이 합창단은 10대 후반, 20대 초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이날 발표회는 안교수가 부친 안석주씨의 글에 작곡을 붙인 "우리의 소원"및 "YMCA 노래"(이석현 시, 안병원 곡) 제창으로 막을 내렸다.

발표회 뒤에 출연자·청중들은 다과를 나누며 담화의 시간을 가졌다.

숙명여대 교수였던 안씨는 현재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성가대 지휘도 맡고있다. 반주자 김진숙양은 토론토대학 음대출신이며 찬조출연의 소프라노 송경란씨는 서울대학 음대성악과 출신, 첼로의 진경희씨 역시 서울대학 음대 출신이다. 바이얼린의 서정양은 만주 하트빈방송및 TV에 여러번 출연했고, 하트빈시악단 바이얼린 독주자로 활약하다가 수개월전 토론토의 부모(하트빈한약상사 서춘원)를 찾아 이주했다. 비교적 교민사회에는 잘 안알려진 음악인이다.

◆한인사회 첫선을 보이는 YMCA합창단의 제1회 발표회 광경. 원내는 왼쪽부터 지휘자 안병원 교수및 찬조출연자 김진숙(피아노), 송경란(소프라노), 연경희(첼로), 서정(바이올린).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경동고등학교동창회

경동동창 여러분, 부디 가족 동반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야외에서 즐기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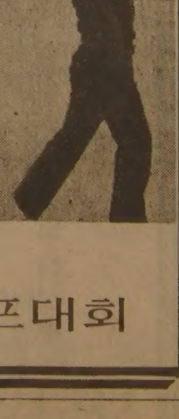
일 시 : 7월10일(토)
장 소 : GLEN HAFFY 컨서베이숀파 (FORESTVIEW PARK)

연락처 : 장진무 494-5308
백운산 624-3849
이춘수 536-2243

경동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장진무

제2회
클링턴호텔(하우스)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금년에도 교민친선 골프대회를 개최코저 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1일(일) 오전11시 정각
장 소 : FIRE FIGHTER GREEN GOLF CLUB (1 Mile North of STOUFFVILLE Side Road on Woodbine Avenue)
참가비 : $30 00 (Buffet Dinner와 칵테일 파티및 엔터 테이먼트)
상 품 : GROSS 1·2·3등 NET 1·2·3등 NEAREST HOLE LONGEST DRIVER HONEST HOLE IN ONE 기타상품
연락처 : 김영규 535-9541 박경윤 921-6397 김성규 757-7828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선착순 55명에 한합니다.

주최 : 클링턴호텔(하우스)골프대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JUN 28 1982

極地에서 온 讀者의 편지

北緯 62도27분·加 옐로나이프의 朴鍾萬씨

"장장 7개월의 외로운 겨울밤 한字한字 더듬는 故國의숨결"

〈편집자주〉: 토론토한국일보는 캐나다 전국을 덮는다. 북극이 지척인 캐나다 서북방 옐로 나이프에 거주하는 박종만(36)씨는"한국일보를 보고 고국의 숨결을 듣는다."고 말했다. 3년전 토론토서 살았던 그는 한국일보 본지 창간기념일(6월9일)을 맞아 본 토론토 지사를통해 서울 본사에 보낸 편지형식의 글에서 고국신문을 읽는 즐거움을 기술했다. 박씨의 글은 본지사 김종환 기자가 정리, 서울본사에 송고했으며, 이는 지난6월9일자 15면에게 재됐으나 캐나다 판에서는 이번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3년전 토론토공항을 떠나 옐로 나이프로 갈때의 박종만씨 부부.

H형,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만 그간 너무 소홀했소. 형과 형수 모두 무고하지요. 나와 아내 두 남매 아이들 녀석도 편안하오.

7년전 고국서 찌는 날씨에 만원버스를 타고 출퇴근할때만해도 혹한 혹서지수를 짐작하곤했지만 이모든것이 지금은 추억이 되었읍니다.

H형, 내가 있는 이곳 캐나다 북단의 옐로나이프(Yellow knife)는 2차대전만해도 눈이 내렸지요. 1년전에는 6월의 문화에 눈보라가 쳐 교통이 두절되는 변도 겪었읍니다.

이곳은 북위 62도27분으로 위도상으로 보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보다 훨씬 더 북쪽이고 그린란드수도 곳호프와 엇비슷하며 고국의 白頭山을 북위 43도보다 19도가량이 높은 곳이오.

차라리 極地가 가까운 이곳에서 나는 韓人社會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읍니다.

이곳을 잠깐 소개하면 겨울은 보통 9월말에서 다음해 4월말까지 장장7개월간 계속되고 봄, 가을은 겨울과 여름사이에 2~3주씩 많던 보이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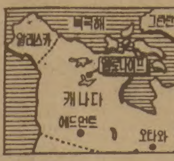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숱베이지의 노래 「겨울이가면 봄이오고」를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오고」로 고쳐 부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30도~40도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추위를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그다지 춥다는 느낌이 지 않읍니다.

여름은 보통 16~20도로 오히려 피서에 적합해서 미국과 캐나다 남부지역서 많은 관광객을 이 맞아오고 있읍니다.

이곳특유의 경관은 白夜현상입니다. 여름철에는 밤에도 해가지지않고 희부연빛을 발산하는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하오3시쯤 해가지고 다음날아침 10시에나 해가 뜹니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에 익숙치않아 신경질이 나곤했지요. 옐로나이프는 캐나다 「북서지방」(노드웨스트 테리토리스) 매켄지구역에 있는 인구1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북극권을 중심, 캐나다북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서지방은 한국면적의 14배정도이나 인구가 4만으로 아직 처녀지로 손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세계에서 가장작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조국과 비교할때 불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주민과 인디언과 에스키모들의 의에 백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석유와 금, 은등 무진장한 광물자원이 발견되고부터 입니다.

이곳도 34년 금광이 발견된 후 일확천금을 꿈꾸는 노다지꾼들의 본거지가 되었죠. 현재는 이곳주민의 상당수가 금광의 광부출신입니다.

캐나다 5만교포중 이곳에는모두 4세대, 10명의 교포가 있읍니다.

5, 6년전만해도 광산에서 일하는 한국분들이 20~30세대는되었으나 모두 한밑천 잡고 남쪽으로 내려갔죠.

H형, 인간이 만든길의 종착지이며 북극까지 경비행기로 2시간이내의 거리인 이곳에서 한국일보를 보고있다면 놀라시겠죠. 한국일보 토론토지사에서 보내주는 신문을 보는것은 우리가족뿐아니라 이곳 4세대 모두의 낙입니다.

우리는 한국일보를놓고 고국의 숨결을 들으며 고국의 현실을 논의합니다.

긴긴 겨울밤에 한자도 빼지않고 신문을 읽는것은 분명 즐거움이며 큰 위안입니다.

우리는 (캐)여인스캔들을 읽으며 격분했고 북구납면을 수십년간 효하며 자식을 키워 효부상을 탄 여인의 기사를 읽을 때에는 눈시울이 뜨거웠읍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캐나다신문에서 읽었을때 우리는 아마 그만큼 감동할수가 없었겠지요.

H형, 이민오는 교포들은 7년전에 나같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오지만 인간의 근심과 고통은 이곳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것,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산다는것을 뒤늦게 깨달은 나는 더이상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점차 고국에 대한情이 더욱 두터워 가고 있읍니다.

H형, 미안하지만 이제 편지 그만쓰고 한국일보가 왔는지 시내우체국의 내 사서함을 찾아가야겠소. 나를 아는 친지들에게 안부 전해주오.

極地가 지척인 옐로나이프에서 아우 朴鍾萬드림.

〈제3회 한맘교육강좌〉①

한국인의 얼 〈1〉

유재신(박사·토론토대학 교수)

이 글은 6월19일 토론토한인천주교 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맘교육강좌 「한글교육과 한국인의 얼」에서 행한 강연 (1) "한국인의 얼"(유재신 박사) 내용이다. (편집자 주)

◆유재신 박사

"오! 한국, 그대는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었네/ 그대의 등불을 한번 더 빛나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온 아시아에 빛나는 빛이 되리라."

이 시는 노벨수상자였던 인도의 세계적 시성 타골(Tagre)이 일본 한국유학생을 통하여 한국에 전한 시이다. 이 시는 한국은 과거의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이었고, 지금 다시 켜질 때 큰 빛이 되어 아시아를 비출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한국사람들이 이분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의 얼과 문화를 자부하고, 이것을세계의 빛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철학자 박종홍 교수가 말씀했듯이 한국사상은 미개척 분야이며, 의견은 있으나 정설은 드

단군신화의 교훈은 한 조상 가진 단일민족

문 형편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들은 외국것은 좋아하면서 자기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우리 것은 봉건적인 것, 쓸데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서양것만 우월한 것으로 빠져들어 간다. 더 나아가서 한국 역사대가 이병도 박사같은 이도 말씀하듯이 우리의 것은 중국것을 모방한, 별로 제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예술품(석굴암, 고려자기등)이 외국사람의 찬탄을 받는 문화로 신비한 격찬을 받는다면 그와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얼"이, 그리고 문화정신이 그만큼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근대의 한국인들에게는 남의 것은 무조건 좋아하고 모방하면서 자기것은 천시하는 "사대주의"에 병들어 "얼빠진" 삶을 살고 있지않나 하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양종교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 측면에서 「한국의 얼」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의 얼을 생각하면 "단군신화"를 생각하게 된다.

단군은 Teugri(무당)라는 몽고의 말에서 연유되고, 군자는 도교의 신에 쓰는 글자이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이냐, 아니냐는 긍정, 부정으로 논란이 되기에 여기서 논의를 약하고, 개천절로 기념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얼"이 주는 관계를 말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의 우리의 얼과 관계되어서의 몇가지 의미는 첫째로 "한국사람은 현세적인 사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아들인 「환인」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화하고 곰인 여성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한국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여서 신, 동물도 사람으로 화해서 한국에 살았다는 현세주의를 뜻한다. 그런데 3국시대에 장래불인 미륵보살을 아름답게 세계적 예술품으로 만든 것을 보면 미래도 현재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로, 한국민족은 한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기에 4000여년 동안 단군이 호국불사신이 되어서 한국을 지켰다고 되어 있으며, 그와 함께 한국사람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적 중국, 몽고, 거란, 일본, 기타 나라의 침략을 막으며 살아왔다. 이 토대 위에 불교가 들어와서 호국불교가 되고 - 유교는 "경세제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종교로 실천되었고, 유불선이 종합한 천도교로 되었고, 기독교와 함께서 민족종교로 3.1운동을 일으켜 항일을 했고 - 일제에 대한 항쟁이 계속되었다.

세째로, 한국은 외래문화를 전달·발전시켜 최남선씨가 주장했듯이 자기문화-광명·윤리문화로 상징되는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째로, 한국민족의 얼은 단군이 주신 "홍익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종교성과 만민의 이익을 위한 평화를 찬양하는 "군자의 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등과 정의에 입각하여 사물을 판단하는 양심적이며 너그러운 정신을 가진 민족이다.

중국의 고문서인 「한서지리지」에 한국에 8조법이 있었는데, 한국은 문을 닫지 않고 지내는 도둑이 없는 나라이고, 여자는 정조를 지키는 나라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인은 흰 옷을 입고, 결백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조상숭배하며 화목하게 사는 도덕적 관념이 강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한국을 흠모해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했고, 중국은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으로 존중했다.

유교가 들어와서 가신숭배의 전통이 굳어 선조께 제사-삼강오륜-충효사상이 발전했고, 효제의 가족윤리가 더 발전했다.

"심청"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는 효성이나 "춘향"이 목숨을 걸고 부귀를 버리고 정조를 지키는 이야기에서 "사랑을 통해서 정이 흐르는 한국인의 얼"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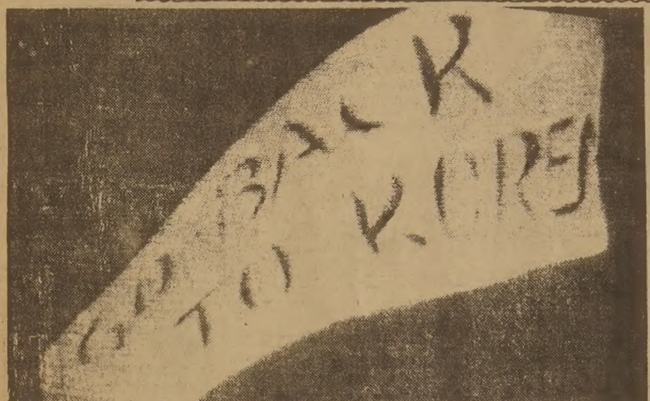
더 나아가서 안은 성자같고 겉은 왕자같은 군자의 얼이 우리 속에 흘렀다. 나는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남자인 "양", 곰은 여자인 "음"이 합해서 "단군"을 낳아서 한국의 문화와"얼"을 창조했다는 이 태극의 모델을 한국인의 얼의 표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종교로서 우리의 전통종교인 무속종교는 남성적·현세적이고, 아주 폭발적인 면과(유교나 기독교도 이에 가깝다고 보겠다.)그리고 도교와 불교는 여성적인 "조용한 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계속)

교포가게에 불

방화인듯 "한국 돌아가라"쪽지



◆"한국으로 돌아가라"-교포업소에 방화와 함께 나붙은 쪽지

(LA지사)"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쪽지를 교포업소에 붙이고 가게에 불지른 사건이 LA근교에서 일어나 교포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3일 새벽2시반께 레돈도·비치의 건강식품점(대표 조익환)에 화재가 발생, 가게내부를 태우고, 약 6만달러의 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수사관은 가게 쇼윈도에 붙여진 "한국으로 돌아가라"(Go back to Korea)의 쪽지를 중시, 원한에 의한 방화로 보고 있다.

캐나다오픈 바둑 10월 해밀톤서

캐나다바둑협회(Go Association) 주최 캐나다오픈바둑대회가 오는 10월중순 추수감사절(11일) 연휴 3일간 온타리오주 해밀톤에서 열린다.

캐나다 최대의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사는 해마다 일본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캐나다대표로 출전한다. 80년 캐나다 바둑대회를 석권한 아마 7단 이세주씨는 세계대회에 참가했었다.

신명철 「최고위」는 작년 10월 뱅쿠버에서 열린 캐나다 오픈에 참가했으나 반집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81년 세계대회 전적은 1~3등 중공, 4~6등 일본, 7등 한국이었다.

테니스 강습

테니스협회 주관

토론토한인테니스협회는 연례행사로 테니스강습을 시작했다.

26일부터 8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상오 10시~12시 2시간동안 초급(beginner), 중급(intermediate), 고급(advanced)반으로 나누어 강습한다.

회비는 1인당 $30, 장소는 더퍼린·팍(Dufferin mall 건너편 공원), 강사는 이건영, 김가절, 장북성, 이창오. 자격은 성인남녀에 한한다.

구독은…
533 2361

가정용 오디오시스템 구입요령

브랜드·출력·제조국따라 3등급

▲(문) 가정용 오디오·시스템을 마련하려 하는데, 어떤 것을 사야할지 결정을 못하겠군요.

시중에 나온 오디오·시스템의 종류와 성능, 가격등을 중심으로 구입하는 요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

▲(답) 오디오·시스템을 사실 때는 개인의 취향과 목적, 그리고 경제적 여유에 따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디오·시스템은 브랜드와 출력, 제조국에 따라 A급, B급 그리고 C급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A급은 주로 북미에서 생산된 출력 1백와트 이상 4백와트 정도까지 나오는 전축, B급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된 출력 50와트 이상 1백와트 정도로 피셔, 아까이, 파이어니어, 산스이, 테크닉 마란츠, 야마하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C급은 주로 한국이나 대만 홍콩등지에서 생산된 출력 약 30와트 이하로 AM FM튜너와 카세트 턴테이블등이 같이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A급의 가격은 보통 US$3천이상이고, B급은 1천~2천5백달러선, 그리고 C급은 약 5백달러 이하입니다.

오디오·시스템은 우선 앰프의 출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높을수록 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정용으로는 20와트에서 2백와트까지 나열될 수 있으나 출력이 클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토탈·하모닉·디스토션(보통 THD라고 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앰프의 성능을 말하는 것으로 음이 찢어지는 일정한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0.005, 0.002, 또는 0.001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데, 쉽게 말해서 숫자가 적을수록 좋다고 하겠읍니다.

세째로는 스피커의 출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세트로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앰프와 스피커를 따로 사는 경우 앰프와 출력이 비슷한 스피커를 사야합니다.

때로는 스피커의 저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보통 8옴짜리로 구입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난합니다.

네째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여유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취미에 따라 앰프와 스피커 턴테이블, 그리고 카세트덱트를 서로 다른 회사제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 경우 특히 조심할 것은 각 파트의 성능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를 시스템으로 사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맞추어 제조하므로 큰 무리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또 오디오·시스템을 살 때는 공장보증기간과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통상 A급인 경우 보증기간은 5년 정도이고, B급은 3년, 그리고 C급은 3개월 내지 1년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개인의 취향과 목적, 그리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구비해야 한다.

생일축하

최언필 옹 칠순잔치
일 시: 1982년6월26일(토) 정오12시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529 BLOOR ST. W.
청첩인: 장남 최창주
차남 최동주
삼남 최기주
사남 최용주

= 정 정 =

23일자 1면 한맘교육강좌 기사중 「유재신박사가 한국인의 특징으로 현세적인 점을 지적했다」한 것을 '현세와 내세를 조화, 승화시키는데 「태극 얼」의 특징이 있다"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박사는 토론토대학교 동양학과의 부교수이며 강사가 아닙니다.

또 같은 기사중 박동규박사의 「이같은 경향은 한국말이 비과학적·비체계적인 감각적 언어이기 때문」이라 한것을 "이같은 경향은 한국말이 과학적인 용어가 부족하고 관념론적 감각적 언어이기 때문"으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의 광장안내

토론토 한국일보는 독자의 성원을 거름삼아 자라는 독자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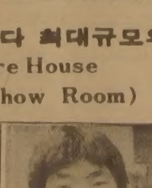
〈독자의 광장〉은 문자 그대로 독자들의 대화의 광장·의견의 광장·제언의 광장이 되기 위한 컬럼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2백자 원고지 3매이내로 주소·성명과 함께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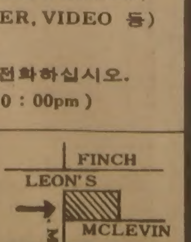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노년회야유회

힌구름이 두둥실 여름의 문턱에 섰읍니다. 여러 회원들의 건강과 사업이 복되시기 원합니다. 금번 노년회에서는 회원들을 모시고 아래의 장소로 딸기를 따러 갑니다. 즐거운 게임과 바베큐가 준비중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가정에서는 이번기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야유회에 참석하시게 도우시면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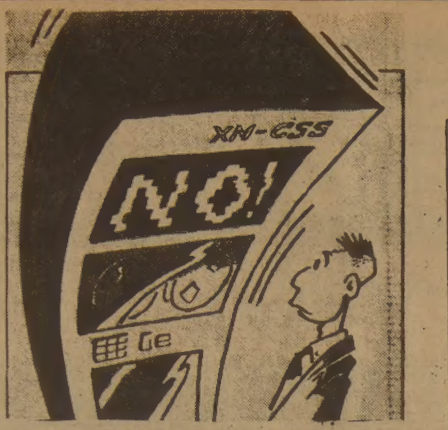
일 시: 1982년7월10일(토) 오전10시 출발-오후6시 도착
장 소: PENGILLEY FARM
회 비: 1인당 $7 : 00
점 심: 각자지참(갈비, 김치, 드링크는 제공함)
신청마감: 7월9일 오후4시까지·선착순 80명
출발장소: 한인회관

사단법인한국노년회 회장 조영호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IATA 최 동 주 (R)293-9970

「크레딧試驗」合格하려면…

보통 신청자의安定性·직업·實收入重視 한군데 오래있을수록 높은點數 받는다



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은 시험을 치르는것과 같다.

크레딧회사는 소비자의 여러가지 특성들을 각기 일정한 점수로 환원해 합격점수이상인가 이하인가를 보고 크레딧을 내준다.

과거 크레딧사용자들의 전력을 컴퓨터에 넣어 「판별분석」이라고 불리는 조사과정을 거치면 양질과 악질의 성격이 나눠져 각기 점수가 매겨지는것이다.

이에 따라 크레딧회사는 어떤 공통된 성격들과 전체 성적등을 기준으로해야 사용자들이 실수없이 제때에 돈을 갚는 경우가 되는지 알수 있게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성적이다. 대개의 크레딧성적제도를 볼때 합격점수를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면의 점수가 낮다고해서 크레딧을 못받는것은 아니다.

크레딧회사들이 사용자의 속성과 성적을 가르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요한것중 첫째는 「안정성」이다.

사용자가 안정되고 책임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할때 크레딧회사는 주택소유자나 직장에 오래 머무른 사람을 좋게 봐준다. 집을 갖지않고 세를 줬다거나하면 점수가 깎인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직업」이다. 특정한 직업에 점수가 후한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코넬대학의 소비경제학부 연구학자들이 조사한바로는 이발사나 미용사들보다 교사, 의사및 정부공무원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즉 옮겨다니기쉬운 직장은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수입」도 중요하다. 돈을 벌어 각종 청구서로 를 져도 남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과거의 재정기록」도 크레딧회사가 빼놓지않고 당국에 조회해 지난날 사용자가 부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이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5>

어떤 情事 ⑮

전화벨소리에 문자는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나이가 보이지 않았다.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명자의 조심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자는 정신이 번쩍들었다.

「여보세요.」

초조한듯 다시 부른다.

「응, 명자니?」

일부러 심드렁하게 말했다.

「자고 있었니?」

「응……」

일부러 크게 하품했다.

「혼자 있니?」

「그럼 혼자있지 않구.」

「어머 그럼혼자잤단 말이야?」

「이 애가…. 친구 혼자 놔두고 내빼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정말 유감많다. 덕분에 나혼자 독수공방했다.」

「어머머, 정말이니? 난 방해가될까봐 그랬던건데…독수공방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런줄 알았으면 우리집에서 함께 잘걸. 우리 영각 어제밤 큰수술이 있어서 집에도 안 들어왔어.」

「너도 독수공방했구나. 어쩌면 신세가 서로 비슷하니.」

그들은 기다렸다는듯이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했니?」

「너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어졌지 뭐.」

「이상한데…. 믿어지지 않아. 둘이 꺼안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떨어질것 같지 않던데…」

「야, 넘겨짚지마.」

「아니야. 너희들 춤출때 정말 볼만했어. 너 어땠는지 아니? 그남자 품에 폭 안겨서…」

"독한마음 먹었더니 시원섭섭 하더라…"

朴男 그림

「그만해둬. 어제는 정말 취했었나봐. 골이 아파 죽겠어. 그 남자 그래도 신사더라. 내가 싫다니까 두말않고 돌아가더라. 사실 나 생각이 없었던건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람 한번 피우고 싶더라만 그게 어디 생각처럼되니. 영감이 자꾸 생각나고 갑자기 겁이 더럭나서 결국 마음을 독하게 먹고 말았지. 시원섭섭하다.」

「정말 잘했다. 사실 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나 얼마나 걱정한줄 아니?」

「요런 앙큼. 그럼 왜 나를 같고가지 않았니?」

「어머머, 얘 봐라.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안가겠다고 하구서…」

「내가 그랬었나? 나 취해서 아무것도 생각안나. 그건 그렇고 해장국 맛있게 하는데 없니?」

「있어. 기다리고 있어. 데릴러갈께.」

「아니야. 올 필요없어. 내가 갈테니까 밖에서 만나.」

「그럼 우리집으로 와라. 해장국 맛있게 해줄께.」

「그럴까.」

수화기를 내려놓고 침대를 차고 일어났다.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제서야 지난 밤의 광란이 생각났다.

무용발표회를 끝내고 ②

김 용 순

이때 뜻밖의 「한인민족상」수상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부터의 성원이었으며, 갈채였고, 나의 모든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가르쳐준 교훈이었으며, 내 정열의 발화점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훈이었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사랑의 표시라고 믿고, 더욱더 열심히 참고 노력해서 이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

발표회가 끝날때마다 너무도 많은 불만과 요청이 터져나온다. "작품이 그대로인 것같다"고, "학생들 수준이 고르지 못하고, 보다 더 전문적일 수 없느냐"고, "무용극을하면 어떠냐"고, 그러나 내 입장에선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발표회 3번에 고정출연자는 단4명-나·오재윤·김정숙·매소진뿐이다. 첫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한국무용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미래등을 장담하지 못하기때문에 발표회 한번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다.

거기에 무용에 대한 천시와 몰이해를 들 수 있다. 여지껏 춤을추어온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예능교육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성의 기본조건인 순수성과 정서적인 면을 돕기위함이라고.

특히 이상적 여인상은? 누구나 현모양처라고 할 것이다. 현모양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누구나 이상향을 따라 노력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 특유의 풍부한 감정과 표현력, 세심한 주의력이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으로 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른들의 그릇된 생각.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욕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어른의 사치품이나 대용품으로 만들지 말자. 모든것이 그렇지만 무엇이나 특기는 시간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애착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능력과 소질을 키우려한다면 한두해로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말이다.

세째, 한국인·한국문화에 대한 부정!

이곳에서 살아야 하기때문에 여기의 모든것을 배우고 쓴다고해서 노랑머리, 파란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거늘 여기의 것과 우리의 것을 확실히배워서 진정 최고의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째, 교육기관의 부족.

어린이만 배울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빠도 엄마도 배워야 한다.

한인회관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옮기기 전 우선 한인회관은 중추적인 교육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인회관에 가면 한글만이아니고, 예능도, 예절도, 풍습도, 체육도 다 익힐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발표회를 끝내면서 생각하는 몇가지가 있다.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달을 위해 한국공연을 구상하고, 고국에서 공연도 하며,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배우며, 잘한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고, 우리들의 공연이 발표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기회도 자주 만들어 보고 싶다.

〈끝〉

구독 한국일보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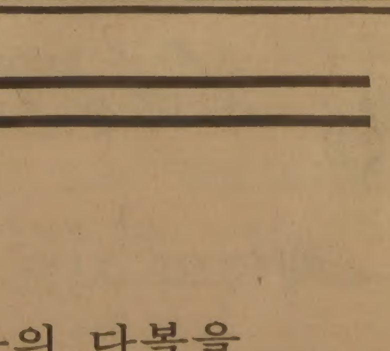
인사말씀

7월1일 개업

녹음이 날로 생기를 더하는 약동의 계절, 교민 여러분의 다복을 축원합니다. 이번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식품 서부지점 을 개설하여 친절을 다하고, 싱싱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싼값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김영록 배

서울식품 서부지점 1391 WESTON RD.
☎ : 243-9544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無記名예금利子에 重課稅

稅法개정案 記名과 差等 25%로 높여

增資주주 稅額공제制

法人稅 공개·非公開 同一하게

私債利子 기업代表者에 2重課稅배제

紙上配當稅 완화·신축讓渡稅는 5%로

정부는 예금자나 신원을 밝히지않은 無記名 예금에대해서는 稅率을 대폭 인상키로했다. 예금자가 이름을 밝힌 記名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이자소득의 15%(교육세포함)를 분리 과세하지만 무기명 예금에대해서는 25%를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주가 자기기업에 자기돈을 투자하는것이 이 달리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增資株主에대한 稅額공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기업에대한 증자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法人稅法을 고쳐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등과세제도를 철폐하고 모두동일한 세금을물도록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기진작을 위한 양도세의완화와 지상배당세의완화를 골자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租稅減免規制法등 3개稅法개정안을 마련, 오는7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시국회가 열리지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企業건실화및 경기진작을 위한 稅制개선안은 기업의 재무구조건실화를 유도한다는 데 역점을두어 증자소득 공제제및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1년연장함과 아울러 증자주주세액 공제제도를신설, 주주들이 기업의증자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증자액의 5%까지 증자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했다.

증자주주에대한 세액공제는 83년말까지 現金으로 증자한 주주에대해 혜택을주며 증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않기로했다.

재무부는 또 기명, 무기명 거래의 차등세율은 예금, 주식, 채권, 기업어음등 제도금융의 모든거래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현재의 가명거래자에게 실명거래로 명의를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주기위해 내년7월1일부터 실행키로했다.

기명거래에대한 세율은 현행세율을 그대로두고 무기명예금만 10%포인트인상키로 했는데 방위세, 교육세, 주민세를 포함하면 무기명예금에대한 세율은 28.5~30.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가명예금과 실명예금의 차등과세결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분리과세세율을인상하고 일정단계를 지나면 분리과세제도를 폐지, 모든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계획이다. 이기간동안 무기명예금에대한 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지상배당세의 경우 면세점을상향조정해서 현재배당가능이익의 50%에서 배당가능이익의 50%혹은자본금(1백억원미만)의 5%중에서 많은쪽을 택하도록하여 기업의 사내유보를 늘리도록했다.

정부는 또 거액어음사건으로 말썽을 빚은 私債의 양성화를 뒷받침하기위해 仲介어음이자의 損金인정과 분리과세도(15~25%)를 실시하고 錢主가 불분명한 私債이자에 대한 2중과세제도를 완화, 代表者(기업)에게 물리는 상여소득세과세는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私債를 쓰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利子源泉稅와 대표자의 상여소득세를부과하고있다.

정부는함께私債이용기업의부담을 완화시켜주기위해 어음仲介室의설치를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사실상의 이자소득에대한 과세형평을 기하기위해 確定利子條件附 還買債에대해서도 記名 15%, 無記名25%의 분리과세를적용하고 법인이 재정증권이나 양곡기금증권을 매입했을때 적용해주던 50%소득공제를 폐지키로했다. 강제소화되는 국민투자채권만은 50%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된다.

坡州서 3國시대 古碑 발견

眞興王 巡狩碑로 추정

東國大 "北漢山순수비와 字劃·行數등 양식 똑같아"

◇眞興王巡狩碑의하나로 보이는 紺岳山정상의古碑。비문은 마멸돼 판독할수없으나 비석의 양식, 크기, 비문字劃, 行數가 북한산 순수비와 똑같다。

眞興王 巡狩碑중 하나로보이는 3국시대碑가 東國大박물관팀에 의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東國大박물관학술조사단(단장 李龍範)은 경기도 坡州郡 積城面의신라 五岳중하나인 名山 紺岳山(해발6백75m)정상에서있는 비석을오랫동안조사한 결과 여러가지점에서 北漢山 巡狩碑와 유사한점을 발견, 眞興王의 순수비로 추정하게 되었다고23일 발표했다.

높이1m70cm, 두께19cm, 폭19cm 크기의 이 石碑는 주민들로부터 大王碑로 불려오고 있다.

지난4월부터 黃壽永동국대총장을 비롯, 李龍範, 李基白, 張忠植교수등은 현지를 여러차례 답사, 비록 비문은 풍화돼 판독을 할 수 없지만 字劃과 行數가 북한산순수비와 똑같은 13行이고 돌 한장으로 된 자연석 암반에 4단으로 홈을 이루어 낀 古式을 하고 있음이 또한 진흥왕순수비양식과 똑 같다. 이밖에 비갓등도 북한산 순수비양식과 일치하고 있다.

積城일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등 3국이 다투어 확보하려던 전략적 要衝地. 남북관통로를 이루어 전전이많았던 이지역은 처음 백제영토였으나 고구려가침입, 빼앗겼다가 다시 신라에 빼앗겼던곳이다.

신라 진흥왕은 영토확장정책에따라 임진강을 끼고 積城까지 땅을넓힌뒤 紺岳山을 신라 五岳의하나인名山으로 일컬었는데 감악산을 五岳으로 인정했던 것으로미루어 이정상에 순수비를세웠을것으로 조사단은보고있다.

紺岳山 古碑를 집중조사해온 李龍範, 張忠植교수등은북방에는 摩雲嶺碑 黃草嶺碑등 진흥왕순수비가있는데 비해 3국이 쟁투를 가장 많이벌인 중부지방에는 北漢山碑만이 확인될뿐이었는데 漢城지역의 중요성에 비추어 積城지역에 진흥왕의 순수비가 반드시 세워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마을指導者 26명 全대통령接見 勳章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하오 청와대에서 금년도 2·4分期 우수새마을 지도자 26명을 접견하고 새마을 훈장을 주었다.

全대통령은 또 이들 우수새마을 지도자들이 속해있는 8개 농촌새마을, 6개도시 새마을에 각각 5백만원, 3개 직장, 5개공장, 4개職能새마을에 각각 3백만원씩을 전달했으며 受賞者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손목시계를선물했다.

이날 새마을 훈장을 받은 우수새마을 지도자들은 다음과같다.

▲協同章(1명)=柳在川(48·全北 井邑郡內藏面松山里)

▲勤勉章(10명) 劉公烈(59·忠南公州郡) 白成鍾(35·慶南居昌) 南海仙(44·江原江陵市) 金達封(48·濟州市) 鄭英淑(41·女·江原春城郡) 李春子(46·女·全南咸平郡) 趙玉蓮(36·女·仁川市) 金宗遠(41·元美섬유全州공장) 尹伉根(46·光明市마을문고) 具定書(46·慶北永豐郡)

▲努力章(15명)=林大熊(55·京畿平澤郡) 崔鍾璇(48·忠北報恩郡) 李在昌(39·大邱市) 李成兒(36·慶北軍威郡) 李金德(59·女·서울恩平區) 李三順(43·女·慶南三千浦) 金重是(55·豐山金屬이사) 朴鍾均(48·永一식품사장) 崔聖福(41·昌原窯業부장) 李明春(48·瑞韓개발공장장) 徐正潤(48·大韓요업조합지부장) 金鍾哲(44·직장새마을운동本部) 林永洛(49·原支部) 申宗鉉(42·서울대표) 楊三仙(44·北區) 大邱市飛山5洞새마을금고)

신임 駐星港大使에 全대통령이 信任狀

全斗煥 대통령은 23일상오 청와대에서 金庚哲신임駐싱가포르대사에게 신임장을 주었다. 이 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이 배석했다.

引責改閣 곧 斷行될듯

劉總理 오늘靑瓦臺예방 「主務장관」포함 小幅說

劉彰順 국무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일정을 마치고 23일하오 귀국함에따라 지난16일 청와대 3黨대표회담에서 거론됐던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에대한 추가引責改閣이 빠르면 금명간, 늦어도 來週初에는 단행될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劉총리는 24일상오중 청와대로 全斗煥 대통령을 방문, 귀국보고를 할예정인것으로 알려져 이자리에서 추가引責改閣에관한 협의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改閣문제에 관해 政界에서는 全대통령이 청와대회담때 각료추가 引責경질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主務장관」이라고 표현한점등에비추어 그동안 野圈과 民正黨일부에서 주장해온 재무·법무장관을 포함, 小幅에 그칠 가능성이 짙은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內閣의 면모를 一新하고 民心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更迭가능성도 없지않은 것으로 점치고있다.

국무총리가 경질될 경우 국무위원임명제청권자가 바뀌게됨에 따라 改閣은 時差를 두고 이뤄지게돼 내주초로 넘어갈 공산도 없지않다.

劉총리는 官寧사건직후와 5·21改閣때, 그리고 지난번 제113회 임시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권고 결의안이 부결된뒤에도 건강등을 이유로 辭意를 표명했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번改閣에서 그동안 경질설이 나돌았던 金埈成부총리는 파리에서열리는 對韓국제經濟協議體(IECOK)회의에 참석키위해 25일 출국할예정이어서 政界에서는 그의留任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하고있다.

劉總理, 사우디訪問마치고 歸國

劉彰順국무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故할리드국왕과 신임 파하드국왕에 대한 弔問및 경축사절단을 이끌고 사우디방문을 마친뒤 23일하오3시35분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일행과 함께 劉총리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사우디정부가 11개국 사절단가운데 한국정부사절단을 제일먼저 맞아 全斗煥 대통령의 弔問과 경축의 뜻을 전할수있었던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함께 國力을 높이 평가했기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劉총리는 사우디방문결과를 全대통령에게 보고하기위해 24일상오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시리아 再休戰

하비브提議 수락한듯 일부地域선 交戰계속

【베이루트·텔아비브22日AP·UPI=聯合】이스라엘은 22일 서부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 지난 13일이래 최대의 공격을 개시한것을비롯, 레바논각지에서 시리아軍·이란軍및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대해 육·해·공3면 입체작전을 벌인후 일부지역의 교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하오6시(한국시간23일새벽1시)를 기해 레바논주둔 시리아軍과의 재휴전에 동의했다.

이스라엘방송은 심차·에를리히수상직무대행이 訪美중인 메나헴·베긴수상과 전화협의를 가진후 이같은 휴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레바논위기해소를 위해 베이루트를 방문중인 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의 제의를 이스라엘이 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방송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휴전은 시리아軍의 발포중지를 그 조건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스라엘의 對시리아 휴전은 22일의 공격재개로 유명무실해진 지난11일의 휴전합의에 이은 두번째 휴전이나 이스라엘의 휴전수락의사가 발표된 시각에도 일부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特殊문제·김은對話 희망

헤이그, 李外務초청 극히 異例的"

美國務省 소식통

【워싱턴22日=聯合】李範錫외무장관은 오는29일 워싱턴에서 열릴 韓美외상회담에서 최근 韓美안보 무역등 懸案문제와 국제정세에관해 논의할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헤이그장관이 李範錫외무장관을 장관취임직후 訪美초청한 것은 異例的인 일인데 한소식통은 李장관의 訪美초청은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21일까지만해도 駐美한국대사관도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이것은 美정부가 양국외상이 단순히 수리를 함께 한다는것보다 회담을 갖기를 원하고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韓美외상회담에서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중점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韓半島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 혹은 南北韓대화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이같은 문제의 토의전망은 배제했다.

아르헨 새大統領 退役將星 비뇨네

陸軍, "獨自國政수행" 선언

【부에노스아이레스22日UPI=聯合】아르헨티나육군은 22일 퇴역육군장성인 레이날도·비뇨네장군을 새 대통령에 임명하고 육군이 앞으로 독자적 책임아래 국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육군당국의 발표는 또 비뇨네장군이 최근 對英戰敗배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의 후임으로 오는7월1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할것이라고 말했다.

육군발표는 이어 비뇨네장군의 통치기간은『안정을 보장하는 순조로운 권력이양기반』이 조성되도록 정당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될것이나, 1984년상반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군사평의회의 결정으로 내려졌다고 말했다.

3軍사령관들이차기 대통령선출을위한 회의를 시작한지 4일만에 나온 이육군발표는 해군과 공군의 정치적역할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제시하지않으면서 다만 육군당국의 이날 결정이 군부의 단결을 저해하지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군사소식통들은 대통령선출과정에서 바실리오·라미·도소 공군사령관과 호르게·아나야 해군사령관이 비뇨네장군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 크리스티노·니콜라이데스 육군사령관의 방침을 줄곧 반대해왔으나 이날 새 대통령이 民政이양을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을 육군수뇌부로부터 얻어낸후 이를 최종순간에 받아들일것 같다고 분석했다.

社会漫評

하나더 써 두자…

地平線

현대를 4F시대라고한다。예전엔 Food(식량) Fire(무기) Fuel(연료)의 3F시대였던 것이 73년의 석유위기 이후 화학비료의 비중이 커져 Fertilizer(비료)까지 합친 4F시대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식량의 비중이 더 커진것을 알수있다. 食糧安保라는말이 국제적으로 자주 강조되고 미국의 穀物메이저가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멕시코서 엊그제 열린 유엔 식량회의에서는 세계인구 11명가운데 1명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는것이 밝혀져 세계적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있다. 케야르유엔사무총장이 말한것을 보면 아프리카의 식량난이 특히심해 1인당 섭취량은 10년전보다 15%나 줄었다한다. 지구상의 기아인구는 4억3천5백만명에 이르러 식량위기가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량위기는 73년의 이상기후로 소련이나 중공이 미국의 소맥을 수백만톤씩 사들였을때부터 계속돼왔다.

▼綠色革命, 遺傳子工學등 한 多收穫品種改良경쟁이 치열하고 마닐라의 국제벼연구소에서는 기적의 쌀 IR8을 만들어 두배의 增收에 성공한지 오래다. 하나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계통의 통일벼는 초기엔 놀라운增收를 보여줬으나 冷害에약하고 병충해방제, 多肥등 조건이 까다로와 시련을 겪고있다.

▼알고보면 육종학적으로 多收穫품종이 새로나와도 몇해안가 그품종이 압도적으로많아지면 遺傳的變異性을잃어 작물은 脆弱하게 된다는학설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벼, 유신벼가 한때 놀랄만큼 좋은성적을 나타냈다가 시들어지는 경향이 있는것도 이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얘기는 미국의회서 특별조사한 遺傳子工學의 오늘과 내일이란 리포트에도 나온다.

▼아프리카의 飢餓현상은 인구증가와 가뭄·홍수로인한 토양의 유출때문이다. 表土깊이가 1인치도 안되는 薄土가 아프리카엔 많다. 미국의 옥수수 재배지대에도 連作으로 토양이 退化, 미국 전체 耕地의 3분의1이 토양유출을 겪고 있고, 아이오와耕地에선 해마다 2億톤의 表土가 사라진다는 조사보고까지 있다. 품종은 개량돼도 땅에 힘이 없어 농사가 안되는 것이다.

▼이토록 세계의 식량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선 보리농사를 해봤자 밑진다고 離農이 많아지는 형편이다. 농업문제는 食糧安保의 次元에서 다루지않으면 세계의 추세에 못따라가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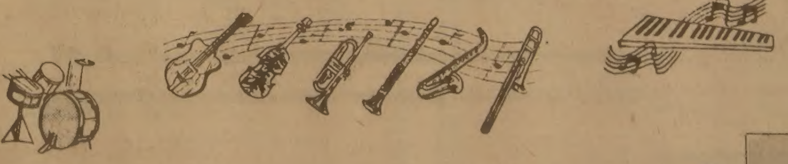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앵콜쇼
기간 : 7월 2일 부터
매주 금, 토, 일 저녁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 기적소리만
망향·향수 · 무정한 여인 등 20여곡

거 구 장
매혹적인 저음의 노래로 지난봄"거구장" 고객 여러분을 흐뭇한 정서에 젖게 해드린 인기가수 배성이 여러분앞에 다시등장! 앵콜쇼로 모시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742-1618

「無法天下」베이루트

이·PLO 戰爭10일…폐허의 都市

"빵배급새치기"엔 銃殺 殺人·强盜등 束手無策

【베이루트22日路AP合=聯】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3면포위된지 벌써 열흘째, 대대로 살던땅과 거리를팔레스타인무장세력과 이스라엘군사이의 싸움터로 내주고 있는 베이루트시민들은 날이 갈수록 이전쟁의 가장 비참한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다。외부와 보급로는 물론 동력원마저 끊긴채 섭씨30도도 넘는 무더위에 묻혀있는 베이루트는 쓰레기더미에서 내뿜는 악취에 코를 막으면서 물을 찾는 시민들로 아우성은 높아만간다。전쟁에 지쳐 표정조차 잃은 이들에겐 포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수를 이루는 銃口들을 보고 더이상 놀라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두때의 침범자들이 하루 빨리 떠나고 내나라 레바논에서 거침없이 살아갈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염원만을 그들은 되뇌이고있다。

◇이 悲劇… 이 어린이의 울음은 언제 그칠것인가。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집을 잃은 레바논 난민들이 급히 세운 천막에서 비참한 생활을하고 있다。【타임誌】

「西部活劇」방불…어른은 拳銃·소년들은 장총들고 누벼

휴전과열전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가운데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불규칙적인 시차로날아와 굉음을 터뜨린다。시민들은 그럴때마다 용감하게도 거리로뛰쳐나와 아름답던 도시가 무참히 파괴되는 현장을보며 통곡하고있다。

들리는것은 총소리, 보이는 것은 총의 홍수다。남자들은 거의 허리춤에 권총을차고있고 10대청소년들조차도 장총을들고다닌다。

카페의 테이블위에는 누구것인지도 알수없는 장총이 어지럽게널려있고 곳곳에서 있는 지프위에는 기관단총, 트럭위에는 對空화기가 장치되어있다。

경찰은 있으나마나해 살인을해도 누가조사하거나 구속하는 사람이없다。

강도 강간 교통위반등은 더욱 말할것도 없다。그야말로 무법천지이다。

살인자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는 희생자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보복이거나 가끔 민병대에의한 처벌일뿐이다。

최근 민병대원들은 체포된 약탈범들중 한사람을 처형했다。한서방외교관은 빵배급을 받기위해 늘어선 줄에서 앞으로 새치기하는 사람을 민병대원이 쏴죽이는 현장을 목격했다。그는 자신의 대사관직원이 민병대에게 납치, 윤간당했다고 『어디다 호소할데도 없다』면서 고 말했다。

총소리라고해서 모두 사람을 쏘는것은 아니다。교통혼잡이 심해 운전사가 짜증이 나면 공포를쏘아 앞차가 빨리 비키도록 한다。

레바논의 주요발전소가 있는 지역가 이스라엘군에게 점령돼 베이루트시민들은 하루에 4~5시간만 전기를 배급받고있다。전기부족으로 식수난은 갈수록심해지고있다。그래서수천명의시민들이 안전하고 물이있는 시골친척 집을 찾아 떠나는 대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자가발전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있다。자가발전기없이는 호텔 관공서 음식점이 가동을 못하고 말기때문이다。

또 램프 양초 플래시 버너등 야영장비장사도 톡톡히 재미보고 있다。

식료품가게에는 통조림류등 저장식품은 바닥이 났지만 시골서 들어 오는 과일조차도 거의 내놓지 않고 뒷거래하고있다。베이루트국제공항은 지난7일이후 지금까지 폐쇄돼있고 우편업무도 중단된 상태다。팔랑헤기독교민병대장악하에있는 東베이루트는 西베이루트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전기도 그런대로 공급되는 편이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안전에대한 위협은 西베이루트보다는 훨씬 적다。

兵力 9만·탱크 1千3百대 이스라엘의 레바논投入軍力

【베이루트23日AP合=聯】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보유탱크의 3분의1, 상비군 거의전부를 투입했다。팔레스타인게릴라들을 西베이루트에서 축출하는데 필요한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군사력이라고 소식통들은 지적하고있다。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사력은 9만병력의 9개 기갑사단, 탱크 1천3백대, 병력및 보급수송을위한 1천3백대의 트럭, 장갑차 1천3백대에 달한다。그리고환자와 포로를 실어 나르기위해 3천5백대의 앰뷸런스와 버스 3백대도 동원돼있다。

이스라엘의 병력은 평상시 13만5천명에 불과하나 유사시 24시간이면 40만을 동원할수있다。탱크는 3천5백대, 장갑차는 4천대에 달하며, 미국또는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것들이다。

관측통들은 西베이루트에 PLO게릴라 8천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1천2백명의 시리아군, 1만5백명의 좌익민병대가 포진하고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美에「聯政」원조 요청 시아누크,「協定」조인후 會見

【콸라룸푸르22日AP=聯】反베트남 캄보디아 3대저항세력이 결성한『민주캄보디아연립정부』의 대통령으로 지명된 시아누크 前국가주석은 22일 미국에대해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점령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원조를 제공해줄것을 요청했다。

시아누크公은 이날 공산크메르루지의 키우·삼판및 우익크메르인민민족해방전선(KPNLF)의 손·산前수상과 연정수립협정에 조인한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는 베트남점령군을 캄보디아에서 몰아낼방도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미 여러나라가 연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하고 미국이 새연립정부에 인도적원조를 제공할것이라는 월터·스토슬美국무차관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美, 軍事지원 안해 反베트남 캄聯政에

【워싱턴22日UPI=聯】미국정부는 캄보디아내 反베트남저항세력의 연립정부수립을 환영하지만 크메르루지를 포함한 어떠한 저항세력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것이라고 美국무성이 22일 밝혔다。

美국무성은 이날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3개파 저항세력의 聯政구성은 크메르의 自決權과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한 긍정적인사태발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美국무성은 성명에서 聯政에대해 재정적인 지원뿐만아니라 정치및 정신적인 지원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군사적인 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록히드社 납품싸고 와인버거 로비도와

【보스턴22日UPI=聯】미국굴지의 항공기메이커인 록히드社가 수송기납품을 둘러싸고 의회를 상대로벌인 로비활동에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관련됐다고 보스턴·글로브紙가 22일 폭로했다。

보스턴·글로브紙는 이날미군부내의 고위장교들이 82억달러규모의 신형 수송기납품권을 록히드社에 넘겨주기위해 미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와인버거국방장관은 이를 적극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메아리

캄보디아에 침공한 베트남軍을 몰리친다는 목적아래「民主캄보디아」의 키우·삼판,「캄보디아인민民族解放戰線」의 손·산, 그리고 前국가주석 노로돔·시아누크등 3대저항세력 지도자들은 22일 콸라룸푸르에 모여「民主캄보디아聯立政府」를 수립키로 合意,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 3者는 캄보디아서 베트남軍을 몰아낸다는 목적 한가지를 빼놓으면 그 이념과 사상, 혹은 과거 행적에 비추어 서로 닮거나 공통된것이 없다。

키우·삼판은 크메르·루지의 폴·포트政權하에서, 몇百萬명에 이른다는 良民을 학살하여 세계에 악명을 떨쳤다。그는 極左에 속한다。반대로 손·산은 공산주의에는 등을 돌린 佛敎사회주의자로서 온건한 右派인물이다。시아누크는 언제나 機會主義者처럼 유랑을 계속해왔다。

이들3者가 처음으로 反베트남聯政을 형성하는 문제를 갖고 한자리에 모인것이 작년9월이었다。1979년1월 베트남軍에 프놈펜을 빼앗기고 西北지방의 泰國변경지역으로 쫓겨난후 이들간에는 베트남軍격퇴를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따금 대두되었다。하나 그때마다 손·산은 삼판과는 同席치않겠다며 반대해왔다。그 3者들이 싱가포르에서 첫會同을하여「聯政」구성을 위한 3파 特別委員會를 설치하는데는 합의했었는데 이 特委안에서도 解放戰線측은 크메르·루지의 간부였던者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해야 연정에 참여하겠다고 주장, 몇번이고 어려운고비를 맞게 했었다。

3派의 聯政이 서기까지는 東南亞國家聯合(ASEAN)과 中共의 후원이 절대적이었다。동시에 美國도 聯政구상을 지지해 주었다。이에는 民主캄보디아聯政이 베트남軍을 몰아내고 베트남의 印支半島장악企圖를 꺾음과 동시에 東南亞에 거점을 확보, 세력을 팽창하려는 蘇聯의 戰略的布石도 허문다는 구상이 깔려 있는것이다。그러나 聯政의 앞길은 순탄치않다。3派중 軍事力은 삼판派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聯政下에서도「自主的」행동을 하겠다고 버티는 중이다。

또 앞으로 軍事支援을 中共에만 과다하게 의존했을때 산파역인 ASEAN중「中共밀착」을 오히려 경계하는 측도 있어 聯政의 舉措에는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더구나 現保有軍事力으로는 베트남軍이나 헹·삼린 캄보디아政權을 물리치기엔 力不足이다。聯政은 이래서 自體內의 不安要素와함께, 엄켜드는「주변강대세력」속에서 헤어나야 할 難題만 잔뜩싣고 出帆하는 셈이다。

反越공동戰線

外信안테나

◆레바논事態解決案곧마련‖베긴 이스라엘수상과 헤이그美국무장관은 22일 레바논주둔 이스라엘및 시리아군의 철수를 포함한 레바논사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두지도자는 워싱턴에서 1시간반에걸친 조찬회담을 끝낸후 이같은 낙관적 견해를 표시했는데 회담 소식통들은 베긴수상이 이자리에서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이 설치될경우 미국이 파병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워싱턴=AP】

◆대처英首相 뉴욕에‖대처영국수상은 23일 워싱턴에서 레이건美대통령과 회담하기에앞서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연설하기위해 22일하오 뉴욕에 도착했다。英國수상관저대변인은 대처수상이 뉴욕에서 하루쉰뒤 23일 유엔본부를방문, 케야르 유엔사무총장과 만난후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30분간 연설할것이라고 전했다。【뉴욕=UPI】

◆미테랑 스페인到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3일간의 스페인 공식방문차 마드리드에 도착, 카를로스 스페인국왕의 영접을받았다。양국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을 방문하게된 미테랑 대통령은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카를로스국왕을 비롯, 레오폴도·칼보·소텔로수상및 주요정당지도자등 스페인 정치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스페인의 歐共市(EEC) 가입 문제와 양국 국경지역에서의 바스크 게릴라들의 활동등 양국간에 불화가되고있는 문제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마드리드=EFE】

◆38개국 3百37명 抑留상태‖국제펜클럽은 22일 세계 38개국 3백37명의 작가·언론인들이 현재 투옥돼있거나 노동수용소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펜클럽간부 마이클·스카멜씨는「국제펜클럽」82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아시아국가들이 구속 작가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않고있기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보다 적은것이라고 지적했다。【[illegible]=AP】

美·蘇해군력 대폭增强

地中海에、美함대52척…蘇도 39척으로

【워싱턴22日AP=聯】美蘇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후 지중해 해군력을 대폭 증강해왔다고 美국방성관리들이 22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관리들은 이번주들어 美 지중해함대가 4척의 항공모함을포함, 모두 52척으로 급속히증강되었다고 말했다。

지중해 美해군력의 급속한 증강은 美함정수가 60척으로 증가됐던 지난73년 중동전이후 최대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소련역시 해군함정수를 평상시보다많은 39척으로 증가시켰다고 이관리들은 전했다。

바로 지난주만해도 헨리·캐토美국방성대변인은 지중해의 美蘇해군함정수가 각각 약30척정도라고 밝힌바있다。

美蘇의 이러한 해군력증강으로 지중해에서의 위험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양측은 사전예방책을 강구,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다。

콜럼비아號 카운트다운

【케이프카내베랄(플로리다)23日AP=聯】美우주왕복선콜럼비아호가 첫번째 군사목적을 띤 마지막 우주비행을 위해 23일 상오6시(한국시간 이하같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우주항공 관리들이 밝혔다。

프랭크·메트리노 실험담당관은 이날 콜럼비아호의카운트다운이 시작돼『현재 순조롭게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콜럼비아호의카운트다운시간은 무려 1백14시간으로 지금까지 콜럼비아호의 카운트다운으로는 가장 긴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美국방성이 1급비밀로 하고 있는 모종의 감지실험기를 싣기위한 것이다。

콜럼비아호는 오는27일 자정에 발사되어 두명의 우주인 켄·마팅리와 헨리·하츠필드에의해 7일동안 조종되며 군사목적외에 학술·과학실험등이 진행된다。

한편 콜럼비아호는 오는7월4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귀환할 예정이다。

美艦, 越船에피격 3척, 公海上에서

【워싱턴22日AP=聯】美해군 함정3척이 지난20일 베트남 남단70해리의공해상에서『베트남국적으로 보이는 선박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美해군이 22일 밝혔다。

톰·유코우스키해군대변인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美해군함정이 동남아해상에서 피격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받고 이같이 확인하면서 구축함 터너조이호가 30구경탄환 1발을 맞았으나 이로인한인명피해는 물론 이렇다할 물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王子탄생…기뻐하는 皇太子 찰즈英황태자내외가 22일 갓태어난 아기를 안고 런던의 聖마리아병원을 나서고있다。【런던22日AP합=聯】

불투명한 아르헨政局

陸軍서 단독選出한 비뇨네大統領…그幕後

空·海軍사령관「攝政」방관 野선 "속임수다" 거센非難

84年「民政이양 약속」등 未知數로 남아

포클랜드패전으로 재연된 아르헨티나의 내정불안은 레오폴도·갈티에리장군의 퇴진과 레이날도·비뇨네장군의 새 대통령선출로 새로운국면에 접어들었다。

새 대통령선출과정에서 지난76년이후 6년간 아르헨티나를 통치하던 3인군사평의회도 대통령선출과정에서 분열, 공군과 해군은 방관자로 돌아서고 육군 단독집권시대가 돼버렸다。

3인군사평의회가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형식상의기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포클랜드패전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공군과해군의 사실상 이탈은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진로를 더욱 험난하게하고있다。

인사이드

더구나 포클랜드패전의 주된 책임이 있는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육군의 단독집권은 비뇨네신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취약하게 할것으로보인다。

비뇨네장군이 비록 3인군사평의회의 합의에의해 선출됐다고하나 공군과 해군은 앞으로 국정에 참여하지않을 뜻을 명백히 했다。

공군과 해군은 3인군사평의회의 새 대통령선출협의과정에서 민간인 출신을 강력히 지지했다。

도소공군사령관과 아나야해군사령관은 비뇨네 장군을 대통령으로 선임하려는 니콜라이데스신임육군사령관의 방침을 계속 반대해왔으나 새 대통령이 민정이양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을 육군수뇌부로부터 받아낸뒤 최종순간에 받아들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군소식통들은 해군은 비뇨네의 대통령선임을 동의했으나 도소공군사령관은 끝까지 반대했다고 전했다。

육군은 비뇨네 대통령의선임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앞으로 독자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힌것은 결국공군과 해군을 앞으로 국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하겠다는것을 의미한다。

새 대통령선임이후 23일열린3인군사평의회에서군부이외 정치적인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것이 이를 증명하고있다。

육군은 이같은 결정이『군의 단결을 저해하지않을것』이라고 밝혔으나 공군과 해군과 이말은 아르헨티나 내정불안이 더 가속화 될것을 예고하고있다。

더구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유일한 국민적영웅으로 칭송받는 도소사령관의 공군이탈도 국민단합에 금을가게하고 있다。공군은 앞서 민정이양과비효율적인행정경제정책의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군소식통들은 포클랜드사태전에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공군의 강경한 입장은 육군의 취약성을 드러낸것이라고 풀이했다。

아르헨티나의 야당인 5개 정당위원회도 새 대통령선임이「속임수」라고 비난하고 즉각적인 민정이양을촉구했다。

오는 7월1일 대통령에취임하는 비뇨네장군은 포클랜드 패전의 처리, 경제의 개혁, 민정이양준비등 산적한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육군은 비뇨네장군이 포클랜드사태에 관련되지 않았고 무색무취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 선임했다。

비뇨네장군은 포클랜드문제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바 없으나 아르헨티나군부재무장해서 영국에 복수해야한다는 군부및 강경파 여론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첫과제이다。

아르헨티나가 영국에 복수하기위해 재무장하기에는 현재 경제상태가 너무심각하다。

3백80억달러의 외채, 저임금, 높은 실업률, 기업의 생산성저하, 천정부지의 물가고등의 악순환이 포클랜드전쟁으로 더욱악화되고있다。

또 아르헨티나국민의 민정이양요구는 포클랜드패전이후 더욱 거세지고있다。

3인군사평의회는 새대통령선임과정에서 오는 84년상반기까지 권력을 이양키로결정했다。

그러나 육군의 통제하에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게될 비뇨네장군이 어느정도로 안정을 보장하는 순조로운 권력이양기반을 마련할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권력이양준비에는 정당및 각계지도자가 참여하게 되어있어 이과정에서 야당및 노조의 입김이 드세질것이 예상되고있다。【申相禎기자】

포島사태 직접관계안해 —아르헨 새大統領 비뇨네

(굴) 退役장군…강경反共주의자

(얼) 엄격한 金融통제政策 펼듯

아르헨티나군사평의회가 22일 새 대통령으로선출한 레이날도·비뇨네는 금년56세의 퇴역장군으로서 정치적으로는 강경한 反共주의자이며 국내경제위기수습방안으로 엄격한 금융통제정책을 주장하고있는 인물。

그가 3人군사평의회에의해 대통령으로 피선된것은 군부출신이면서도 포클랜드사태에 직접 관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군이강력하게 천거한 때문인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포클랜드에관한 그의 견해는 아직 밝혀진바 없다。

비뇨네장군은 1976년 아르헨티나에 군정이실시된 이래 7번째 軍출신 대통령이됐다。

갈티에리 대통령의 후계자명단에 오르기까지 그는 정치적인문제에 전혀언급하지 않은채 은둔생활을해왔다。

대부분의 퇴역장성이 그렇듯 그는 지난주 갈티에리 장군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직을 승계한것과 동시에 군사평의회위원이된 크리스티노·니콜라이데스장군보다도 그실권이 약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비뇨네장군은 1926년 생으로 슬하에 3자녀를 갖고있다。【부에노스아이레스22日AP=聯】

海外토픽

가족생일 숫자골라 ★5百50만달러 복권당첨

일생동안 도박이라곤 해보지않은 美펜실베이니아州에 사는 한은행여직원이 주에서 발행하는 복권의 특등상에당첨돼 5백50만달러의 상금을 받게됐다。

도로시·토머스부인(52)은 자신과 남편 네자녀의 생일의 날짜 숫자를 연결시킨것과 똑같은 복권번호를 고른결과 이같은 행운을 차지하게됐다는것。

이에따라 그녀는 앞으로21년간 매년 26만달러가 조금 넘는 상금을 분할 지급받게됐다。【하버타운=AP】

日 특근제한하기로 ★국제여론에 못이겨

일본의 고용인들이 지나치게 특근을함으로써 불공정하게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있다는 국제여론의등쌀에 못이겨 일본노동성의 한조사위원회는 남성고용인들의 특근시간을 제한하기위해 근로기준법의 수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日本의 현행근로기준법에는 여자의 특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남자의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없는데 이위원회는 잠정적으로 남자의경우 한달간의 특근시간을 50시간으로 제한키로결정。

그런데 기자와 같이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근제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것。

노동성관리들에 따르면 서방선진국근로자들의 1년통산특근시간이 평균 1천8백시간대인데반해 일본은 2천1백62시간이라고。【東京=時】

주사위로 英艦격침 ★美製놀이기구 英國서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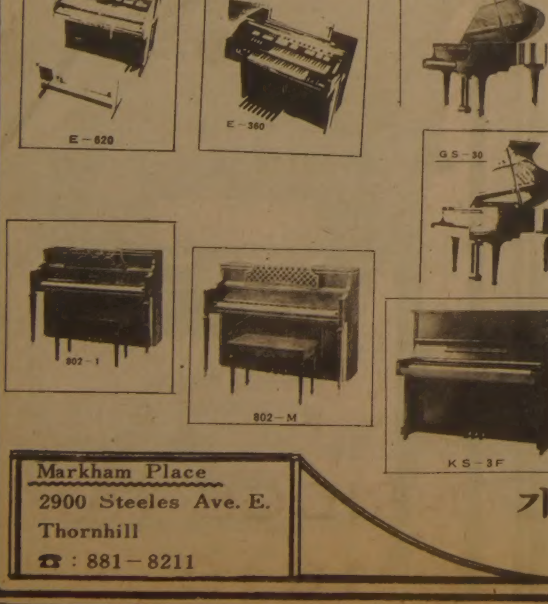
주사위를 던져 영국해군함정을 격침시키는 포클랜드전쟁 놀이기구가 등장, 영국인들의 큰반발을 사고있다。

런던의 선데이·메일지는 최근 미국에서 만든 이 잔인한 놀이기구가 영국까지 진출, 개당 16·1달러에 판매될 전망이라고 20일보도。

특히 노동당의 톰·토니의원은 통산성에대해 이장난감의 수입금지조치를 요구할것이라고 밝히면서 포클랜드전쟁에서 희생된 전몰자가족의 슬픔을 외면한 업자들의 무감각한작태에 분노를 금할수없다고 토로。【런던=AP】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전자올갠 그랜드 피아노



여름철특별대매출

BONTEMPI이태리안 올갠

$99.00 $39.95 $799.00 $399.00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월드컵 트로피

◇앞으로의 大會日程

25일까지 6個組 1차리그…12팀進出
28일~7월5일 2차리그…4팀선발
7월8일 準決勝戰·11일 決勝戰

중간決算

과연 어느 나라가 1차리그의 관문을 뚫을까。지난13일 스페인서 막을 올린 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는 충격적인 화제와 희비속에서 열전을 벌이고 있다。4개팀씩 6개組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 1차리그는 25일 스페인—북아일랜드전(5조)으로 끝나고 28일부터 7월5일까지 2차리그전에 들어간다。1차리그의 각조 1, 2위팀이 참가하는 2차리그는 4개조(1개組 3개팀씩편성)로 구성되며 각조 1위팀이 결선에 진출, 7월8일에 준결승전, 11일에 대망의 결승전을 벌이게 된다。이번 월드컵대회 1차리그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검은大陸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출전한 알제리, 카메룬의 눈부신 활약들이다。이두 블랙파워의 기수들이 앞으로 어떤성적을 올릴지 두고보아야하겠지만, 2차리그 진출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이 현재까지 보여준실력은 놀라운것이었다。

異變 충격 喜悲 화제

갈수록 熱氣… 월드컵蹴球

세계의耳目이 스페인에 쏠려있다

處女출전팀에 強豪 쩔쩔

起伏속에도 브라질·아르헨·西獨·스페인이 優勝후보

아프리카 최우수선수상의 라크달·벨루미가 이끄는 알제리가 이번대회 예선2조 첫경기서 명문강호인 西獨을 2-1로 물리쳤을때 세계는 월드컵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변이라고 놀라와했으며 카메룬은 강호 페루, 폴란드와 대결, 각각 0-0 무승부를 기록하여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어 놓았다。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나라는 온두라스, 알제리, 뉴질랜드, 카메룬, 쿠웨이트등 5개국인데 이가운데서 뉴질랜드를 제외한 4개국은 1차리그서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있다。

일부 매스 미디어에서는『축구의 제3세계를 경계해야하며 강국들이 자만에서 깨어나지못할경우 앞으로 10년이내에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작은고추가 맵다는것을 알아야한다』고 보도하고있다。

아프리카 축구의 급속한 전력향상은 과거전적을 살펴보면 쉽게 알수있다。74년 西獨월드컵대회때 자이레는 예선서 스코틀랜드에 2-0, 브라질에 3-0, 유고에 9-0으로 대패했다。그러나 4년후 아르헨티나 월드컵서 튀니지는 아깝게 1차예선 고개를 넘지못했지만 西獨과 0-0 무승부를 기록하고 멕시코를 3-1로 물리쳐 룽숏의 명수, 신데렐라의 팀으로 각광을 받았었다。

第3세계 恐怖論도 대두

아프리카 축구가 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英國과 동구공산권(유고, 헝가리, 불가리아등)의 유명한 축구지도자를 초청,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팀을 집중강화해온 결과다。아프리카서 FIFA(국제축구연맹)에 가입한 나라는 40여개국인데 南阿공화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아프리카국가대항전(아프리칸·컵)을 통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있다。대표팀에 특수한별명(검은독수리 등)을 붙여놓고장기강화훈련을 벌이는것도 한국과비슷하다。상당수의 아프리카 선수들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여러나라서 프로선수로 활약중이다。

흑인 특유의 동물적 탄력과 날씬한 몸매, 끈질김과 순발력도 큰 밑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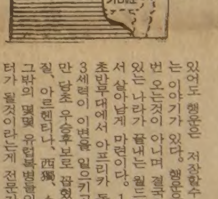
2차대전이후 64년 東京올림픽이전까지만 해도 개인기중심의 원시적축구를 했으나 7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스타일의 조직력을 마스터,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으며 오는 90년 월드컵대회때에는 완전히 중진국대열에 진입할것으로 전망된다。가나가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64년 東京올림픽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이후 현재의 아프리카는 놀라보게 달라졌다。

스타플레이어, 英雄은 중요한 경기에서 한몫을 한다。펠레이후 가장 빛나는 각광을 받고있는 디에고·마라도나(아르헨티나)는 예선 첫경기서 부진 하더니 헝가리와의 2차전서 화려한 개인기를 유감없이 발휘 했다。유럽 최우수선수 칼·하인츠·루메니게(서독)도 다리부상을 무릅쓰고 분전, 개인득점 레이스서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고 환상적 HB지코(브라질)도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밖에 B·롭슨(잉글랜드) K·달그리시(스코틀랜드) L·키스 L·파제카스(이상헝가리) D·베르토니, O·아르딜레스(이상 아르헨) 소크라테스, 에데르(이상 브라질) A·파넨카(체코) O·블로킨(소련) E·반헨베르그(벨기에)등도 주목의 공격수로 각광을 받고있다。

축구속담에 『실력은 저장할수있어도 행운은 저장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행운은 여러번 오는것이 아니며 결국은 실력있는 나라가 끝내는 월드컵 전쟁서 살아남게 마련이다。1차리그 초반부대에서 아프리카 돌풍, 제3세력이 이변을 일으키고 있지만 당초 우승후보로 꼽혔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西獨, 스페인과 그밖의 몇몇 유럽복병들의 전쟁터가 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견해다。

【安泰煥기자】



10大産油國…소득千6百弗

알제리 면적 2백38만1천7백41평방킬로미터, 인구 1천9백13만명·수도는 알제, 기원전 12세기경부터 페니키아인의 무역지로 유명, 1830년 프랑스군에 점령당한후 프랑스본국의 일부로 편입됐다。62년9월에 완전독립했다。좌경비동맹 노선으로 67년 中東전쟁때 親蘇化했으나 73년부터 對蘇관계가 냉각, 74년 美國과 복교했다。1인당 국민소득 1천6백여달러이며, 세계10대 산유국이자 세계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주민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 회교가 국교이며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프랑스어도 널리 사용된다。

인구8百50萬 佛領서독립

카메룬 면적 47만5천4백42평방킬로미터, 인구 8백50만명, 수도는 야운데。독일령 식민지였다가 1차대전후 영국·프랑스가 분할, 남부는 佛領카메룬으로 발족했다。46년 유엔이 양국의 신탁통치를 인정한후 58년 유엔에서 독립을 결의, 60년1월 공화국으로 독립했다。72년 5월 연방제를 폐지하고 단일국가로서 국호를 카메룬 연합공화국으로 개칭。주산물은 코피·코코아·야자유·목재 면화등。1인당 국민소득 5백60달러。주민은 남부 반투계와 북부의 수단계도 대표된다。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

아프리카旋風몰고온 블랙파워의 두主役

벨루미의 알제리

◇1차리그서 거함 西獨을 격침시킨 알제리 대표팀。지난해10월 월드컵 아프리카예선 최종전서 나이지리아를 물리친후 찍은 사진이다。

◇아프리카의 重砲 벨루미。아프리카컵대회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벨루미는 키가크고 통찰력이 뛰어난 공격수。알제리 축구의 우상이다。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알제리축구가 월드컵사상 최대의 이변을 일으켰다。알제리의 위대한 스타 벨루미와 프랑스에서 축구생활을 하는 위대한 용사들의 활약은 세계축구팬들을 놀라게했다。

81년10월30일은 알제리 축구사에 영원히 기록될 중요한 날이다。알제리 대표가 나이지리아를 2-1로 격파, 월드컵 본선행 티킷을 처음으로 따낸것。66년부터 월드컵 예선에 참가한 알제리는 그동안 본선진출을 위해 온힘을 쏟았다。그러나 그꿈은 매번 다음으로 미뤄지기만 했다。

이꿈을 실현시켜준 사람은 소련출신의 코치 로고프。한때 모스크바 기관차팀과 중앙아프리카팀 코치경력을 갖고있는 이 은퇴 체육교사는 외국프로팀에 몸담고있는 우수한 알제리 선수들에게 단결과 조국애를 호소했다。

나이지리아와 중요한 두 게임을 앞두고 프랑스등지에서 활약하던 다레브를비롯, 5명의 뛰어난 선수들을 고국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로고프코치의 수훈은 해외진출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국내로 복귀시켰다는 점에 있었다。

유럽 프로選手들이 주축…蘇출신 코치

알제리 국민들이 그들국가대표팀이 월드컵본선에 진출하리라는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고있을때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돌아온것이다。그렇다고해서 알제리팀이 해외서 복귀한 선수들만으로 구성된것은 아니다。국내 선수들도 그들의 재능에따라 위치를확보했다。

아프리카대륙의 최고 선수들중의 하나인 GK메디·세르바, 수비인 코우리치와 겐도우츠 그리고 미드필더겸주장인 페르가니, 공격수 마드예르등이 알제리의 믿음직스런 일레븐에 합세했다。

전국민의 우상이며 탁월한 게임리더로 알제리밖에까지 명성이 자자한 공격형링커는 벨루미。알제리 축구의 역사적인물인 라치드·모콸로피의 뒤를 이은 장신 벨루미는 지난17일새벽(한국시간)對西獨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

두발을 모두사용하는 특출한 테크닉과 뛰어난 게임통찰력을갖춘 벨루미는 월드컵예선 對나이지리아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보스기질과 23세의 나이를 미루어볼때 거인(巨人)이 될수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주위에서 극찬하고있다。

엔코노의 카메룬

◇10년 침묵을 깨고 세계축구무대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사자」카메룬。철통같은 수비력을 자랑하고있다。

◇「검은 야신」토머스·엔코노㊧。카메룬 주장이기도한 GK 엔코노는 몸동작이 날렵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다。

길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진지 10년만에 회생, 월드컵 본선에까지 뛰어오른 카메룬이 페루, 폴란드등 축구강대국에 굴하지않고 어깨를 나란히해 눈길을끌고 있다。

예선 1조첫경기에서 페루와 0-0으로비겨 돌풍을 일으킨 카메룬은 전통의 강호 폴란드와도 0-0으로 비겨 끈질긴팀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지난70년 카르툼에서 열린 제7회 아프리카컵대회 이후 빛을 보지못했던 이 사자들이 성난모습을 드러낸것은 지난5월。

리비아에서 열린 제13회 아프리카컵 축구대회서 우승을 차지, 월드컵 본선진출권을 따낸것이다。

카메룬의 이같은 변화는 유고출신 코치 브란코·쥬티치의 덕。

그가 카메룬팀의 지도를 맡은것은 80년6월12일。4명의 트레이너가 기울어지는 배를 바로잡지 못하고 차례로 떠난 후였다。쥬티치는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등 3개의 아프리카팀과 10년동안이나 접촉을 해왔기때문에 이미 아프리카축구에 대한 지식은 거의 완벽할정도였다。

"성난 사자들"…10年만에 列強 대열에

우선 프랑스에서 축구생활을 하고있는 선수들을 불러모았다。

카메룬에서 가장유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있는 선수는 로제·밀라。그야말로 이상적인 골게터인 그는 민첩하고 공격적이며 상대팀 수비선수들에 항상위협을 준다。자이레와의 월드컵 예선경기서 4골을 뽑아냈던 밀라의 한가지 문제점은 묵하면 심판과 싸우는 것。마치 노란카드를 수집하려는것같다는 평을 듣고있다。그는 잭슨빌에서 축구를 하고있었는데 쥬티치 코치가 픽업, 카메룬의 축구리더가 됐다。

프랑스 프로팀서 뛰고있는 이브라힘·오두와 미셸·카항은 컨디션을 조절할줄 알고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있는 수비선수들이며 이들이 가세한것은 월드컵에 진출한 카메룬에 큰 활력소가 되고있다。

골키퍼인 엔코노의 별명은「검은 야신」(야신은 은퇴한 소련의 세계적 GK)。엔코노의 능력은 이번 폴란드와의 대전에서 한골도 허락치않은것이 잘 말해주고 있다。

첫눈에 보아도 다재다능한 선수라는것을 직감할수있는 아베가, 드리블의 대가로 알려진 엠비다등으로 이뤄진 카메룬팀은 성난사자들이라는 표현을 들을만하다。

◇슈퍼스타 마라도나
스페인 월드컵서 가장큰관심을 끌고있는 아르헨의별「디에고·마라도나」。헝가리와의 경기서 2골을넣어 갈채를 받았다。

◇해트트릭의 루메니게
칠레와의 경기서 해트트릭을 기록, 유럽최우수 선수 관록을 보여준 칼·하인츠·루메니게(서독)。

◇펠레의 後繼者 지코
브라질 不動의 HB 지코。펠레가 갖고있던「背番10」을 후계한 스타플레이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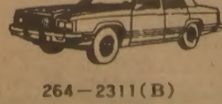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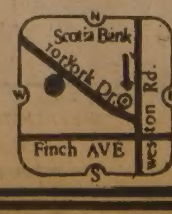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醫藥분업 이랬다 저랬다

平地風波

「強制分業」서 다시 「임의」勸奬에
藥師會반발 木浦 藥局 한때撤市

국민개보험제도를 대전제로한 보사부의 「의·약분업」방침이 의사에 이어 약사들의 큰 반발을 받고있다. 보사부는 오는 86년까지 국민개보험제도를 실시하기로 확정, 이를 성공시키려면 「의약분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시범실시」방침을 세우고있는데 의사들이 현실여건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분업에대해 집단적인 반대의사를 편데이어 최근에는 약사들이 『「강제분업」을 즉각 실시해야하며 「임의분업」은 곤란하다』고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한것. 의사나 약사들이 모두 국민개보험을위해 「의약분업」이 종국적으로는 실시돼야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고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가 시행시기와 방법을놓고 의견이 맞서고있는 형편이다.

보사부는 23일 오는7월1일부터 2종의료보험이 시행되는 전남木浦, 경기江華, 충북報恩등 3개시군과 기존3개2종보험지역의 의약관계를 「임의분업」으로 실시하도록확정발표했는데 이에대해 약사들이 시행을한다면 「강제분업」의 형태가돼야한다고주장하고나섰다.

이날 보사부발표가나자 木浦市 84개 약국들은 「임의분업」에 항의, 한때 문을닫고 철시했고 대한약사회는 이날 하오2시부터 전국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 대책을 협의했다.

보사부가 이날 전국의약단체에 시달한 「처방및 조제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약사가없는 병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약사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처방전을 발행해야한다고 밝혀, 외형적으로는 강제성있는 분업의형식을 취하고있으나 알고보면 약사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하고있어 지역의료보험에서의 의약관계는 사실상 「임의분업」으로 확정된것이나 다름없다.

이에대해 약사회측은 2종보험시범실시지역의 의약관계가 「임의분업」으로, 병의원의 처방전발행이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으나 지난1년간 병의원의 원외처방전 발행실적이 극히저조, 약국들이 극심한경영난에 처해있고 결국 현행 보험제도하에서 실제로 약국이 소외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이 소외의 폭을 넓히는것을 찬성할수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측은 진료와조제를 엄격히 분리해야만 약측의 전문성을 모두살릴수있고 약국이 보험에 참가함으로써 국민개보험의 앞날에 대비할수있다면서 「임의분업」형태로는 약국만손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회측은 조제는 의사의치료행위의 일종으로 법으로보장된 권한이며 병원에서약을받아가는 관행이 국민의 의료형태로 이미굳어져있어 원외처방전발행은 환자에게 불편을줄뿐아니라 의사가 환자의경과를 계속관찰할수 없으므로 진료여건을악화시키는 결과가되고 약국들이 처방전을 수용할수있는여건이 되어있지않다는 이유등으로 약사회측의 「강제분업」주장에 팽팽히 맞서고있다.

이에대해보사부당국자는 『의약분업은 개보험과 관련, 국민의료가 지향해야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시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밝히고 『기존 3개시범 지구에서처럼 약국이 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지도 감독하는 한편 시범사업기간동안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결과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분쟁조정등 제도적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등을 시범실시기간동안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의분업」은 약사가 없는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조제해 주거나 또는 원외약국에 대해 처방전을발행해줄수도있는 제도이며 「강제분업」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조제, 투약해주지 않고 처방전만을 발행, 약사가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주는 제도이다. 【金薰기자】

◇藥師會 대의원 對策강구　대한 약사회 전국대의원들이 23일 약공회관에 모여 보사부의 의약「임의분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있다.

教育大 남녀定員制모집
내년부터 국민교「女性化」막게

문교부는 23일 전국의 교육대학에 여학생이많아 국민학교어린이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있다고 판단, 내년도 입시부터 남녀정원제로, 또사범대학(일반대교육학과 포함)은 계열별이 아닌 전공이나 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82년도 전국13개 교육대학 신입생에 대한 남녀별분포조사결과 여학생이 평균85%를차지하는등 최근 수년동안 계속 여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어 이들이 졸업할경우 국민학교운영에 큰차질을 빚고, 어린이들의 여성화 경향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남자학생이 늘어날수있도록 일정비율로 남녀별정원을 두기로했는데 경화한비율은 오는9월의 교육대학모집요강에서 정하기로했다.

지금까지 남자신입생이 적은이유는 지원자가 모자라기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으로 내년도 부터 실시하게 되는 출신고교장 추천의무제도와 병행실시할 경우 전국의각교육대는 정원미달사태등 여러가지문제가 일어날것으로 예상된다.

문교부는 또 학과별교원의 장기적인 수급안정을위해 전국사범대학의 신입생은 학과별로 모집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문교부는 교직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이 양성되지 않도록 평소 주벽, 폭행등의 악습이 있는 학생을 철저히 가려내 사전징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교대생들의 생활교육을위해 전학생에게 1학기동안 기숙사생활을 의무화하기로했다.

또 문교부는 금년말까지도 약4백명의 교대졸업생이 임용되지못했다고밝히고미임용과관련,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졸업생지도에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改宗교사 몰아내 本人은 계속出勤
大韓教聯등 原狀회복요구
金泉 聖義상고

◇朴基成교사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임용된 교사가 과거 다른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대한교련등 교직단체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교련에의하면 학교법인 천주교 大邱교구가 재단으로있는 金泉 聖義상고(교장 崔利煥)는 지난3월 朴基成교사(30·사진·국민윤리담당)를 임용했는데 朴교사가 어릴때 천주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실을 문제삼아 지난4월13일자로 임용철회를 통보했다는것.

朴교사는 지난학기까지 경북星州서 성광중에 재직하고있었는데 이학교로부터 전출요청을 받아 부임해왔다가 임용철회통고를 받은 朴교사는 이에 불응, 매일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한편 대한교련은 이사건을 사학교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사례로 보고 교권옹호위원회를 긴급소집, 朴교사의 신분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교련조사에 의하면 학교재단측은 『과거 천주교 신자였으나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가톨릭의 교회법에따라 교사로 임용할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詐欺당한 50代 자살
治安本部長앞으로 遺書

23일 상오5시40분께 서울東大門區徽慶洞 위생병원뒤 배봉산 중턱에서 權彝性씨(51·무직·서울 東大門區徽慶洞77의3 삼영연립주택 6동 102호)가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숨진 權씨 옆에는 가족과 치안본부장에게 보내는 유서가 있었는데 權씨는 유서에서 『지난2월 경기 城南市에사는 申모씨(42)에게 백만원 사기당해 城南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않고 지난 5월에는 서울 東大門경찰서로 이첩돼 빚만 늘어나게됐다』고 주장했다.

權씨는 또 고소당시 경찰이 수사비를 보태달라고 요청, 10만원을 주었다며 『수사과장을 고발한다』고했다.

한국일보
533-2361

5行뉴스

◆짝사랑마저깨져 20代放火 【水原】경기도華城경찰서는 23일 짝사랑하는 처녀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준 사람 집에 불을 지른 김태준씨(25·경기도華城郡 鄕南面桃李里)를 살인미수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구속했다.

◆물마른江바닥 水石꾼득실 【聞慶】가뭄피해가 심한 문경군마성면하내리(속칭 구랑리) 영강천변에 지난 20일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전세내 내려온 수석수집꾼 30여명이 하천을 마구 파헤쳐 가마니로 수석을 담아갔으며 지난21일에도 大邱의 수석수집꾼들이 몰려와 하천 곳곳에서 돌을 캐내 농민들의 빈축을 샀다. 【聯】

◆機關員행세 가짜탈令狀 【天安】충남溫陽경찰서는 23일 가짜기관원 정치영씨(22·충남唐津郡合德邑寶山里72)를 공문서 변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聯】

◆機關員사칭 골동품詐取 【釜山】부산시경은 23일 기관원을 사칭, 3천만원어치의 골동품을 사취한 주용동씨(24·경기도 華城郡 우정면)를 붙잡고 이조청화백자용병등 골동품 4점을압수했다. 【聯】

가뭄심한 南原·長水등 7개郡
모내기 포기…代播

【全州】전북도는 계속된 가뭄으로 한발피해면적이 늘어남에따라 모내기가 불가능한 南原·長水郡등 7개군은 다른작물로 파종토록 한편 나머지지역은 도내 모든장비를동원, 이달말까지 모내기를 끝내기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24일 이미 모내기를마친 평야지역의 양수기와 호스30㎞를 가뭄이극심한 南原 任實 鎭安 長水 茂州郡등에 보내고 앞으로도 비가계속 내리지않을것에 대비, 한해대책자금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聯】

「큰손집」强盜 수배主犯 잡혀

서울 城北경찰서는 23일李哲熙·張玲子부부집 침입강도사건의 주범으로 수배중이던 金勇炳씨(42·전과13범·서울東大門區 面牧1洞 21 3)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

金씨는 李·張부부집에서 범행후 서울鍾路區苑西洞 렌트카업소인 삼호상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경찰의 눈을 피해 오다 22일 하오 11시30분께 붙잡혔다.

金씨는 지난해5월19일새벽2시께 공범인 동생 平喆씨(32·전과2범·수배중)및 鍾植씨(31·구속)등과 함께 서울 江南區 淸潭洞 2번지58의2 李·張부부집에 복면을하고들어가 李·張부부와 가정부, 경비원2명등을 스타킹, 압박붕대로 묶고 이발용 면도칼로 위협, 2·8캐럿트짜리 물방울 무늬 다이어먼드와 롤렉스손목시계, 루비반지등 6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갔었다.

大都市 방어訓鍊
어제 大邱서實施

【大邱】전시에대비한 대도시방어를 위한 군·관·민종합훈련이 전국최초로 23일하오 대구시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는 大邱시주둔 전부대와 공군·육군항공대·특전사·야공단·시내전행정기관·예비군·민방위대원·일반시민등이 참가했는데 훈련은 하오2시50분 훈련경계경보발령과동시 시작, 30분간의 민방위훈련과 군사작전훈련이 등하오5시께 계속돼 대구시의 방어태세를과시했다. 【聯】

비는 안오고 때아닌 海溢
海南등 農耕地피해

【木浦】심한한해를 겪고있는 전남海南新安郡등 남해안일대에 때아닌해일이 엄습, 농경지 피해를 가중시키고있다.

23일새벽 4시10분부터 20분동안 전남海南郡 馬山 溪谷 黃山 山二 門內面등 남해안일대에 해일이 발생, 溪谷面 德尚里 제방 10m등 10여개소의 제방이무너져 이일대 농경지 60여ha와 3백50여평의 못자리가바닷물에침수됐다.

또 이날새벽 3시30분께 新安郡 智島面台川里1구는 속칭 곤머리방조제5m가 해일로무너져 20여ha의 염전이 침수됐다. 【聯】

한夫婦는 月賦TV사고 한夫婦는 保證
傳貰살며 遠征사기

【釜山】부산남부경찰서는 23일 두쌍의 원정부부사기단을 적발, 이중 김영선씨(32·大邱市西區內塘洞4가841)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남편 주영팔씨(35)를 비롯, 김복식씨(36·경남蔚州郡三南面加川里)와 김씨의 부인 이금씨(33)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두부부는 지난3월22일 부산에내려와 東萊區華山7洞919 밤모씨의 2칸짜리방을 월15만원에 세들어 살면서 주씨가 4월1일 하오7시께 華山7洞 1947 삼성전자 華山종합센터(주인 박종환·28)에서 14인치 컬러TV 1대를 1회불입금 2만원을내고 월부로 구입하면서 김씨부부가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사취한것을 비롯, 4월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8개전자제품대리점에서 컬러TV 8대(싯가 2백48만원상당)를 사취한뒤 大邱로 달아났다가 김씨만 경찰에 붙잡혔다. 【聯】

農耕地 4萬여ha 장마浸水대책없어

【全州】全北도내의 萬頃江·東津江·錦江등 3대강 유역 상습침수 농경지 4만1천2백31ha의 배수로가 보수되지않아 장마철을 앞두고 적잖은 침수피해가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23일 全北道에 따르면 도내 전체 농경지 16만6천6백ha 가운데 20%가 넘는 金堤·益山·井邑·沃溝·扶安·完州등 6개군 47개지구 3만5천6백31ha의 농경지는 이일대의 젖줄을 하고있는 3대강의 하상이 논바닥보다 1~1.5m 높고 배수로 폭도 좁아 장마철만 되면 해마다 큰 피해를 입어 연평균 약90억원에 해당하는 12만5천섬의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는것.

그러나 이일대에대한 道의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40억9천3백만원을들여 착수한 沃溝郡開井面의 1천3백37ha를비롯, 益山郡黃登面 1천3백40ha, 五山면, 5백20ha, 井邑郡新泰仁邑 4백80ha, 金堤郡金堤邑 1백50ha등 5개지구 3천8백27ha에 그치고있다. 【聯】

身檢이유 임시休業
학부형 反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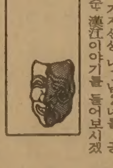
【寧越】최근 일부학교의 교사들이 정기신체검사를 이유로 하루씩 임시휴업을 하고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寧越郡寧越邑 모국민학교의 경우 지난15일 교사 40여명이 江原도립寧越병원에서 정기신체검사를 받는다고 전교생(1천8백여명)에게 이날하루수업을 시키지않았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도내 여러지역에서 행해지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신체검사는 방학기간동안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신체검사를 이유로 수업을하지않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 주장했다. 【聯】

漢江어부 1號
고기잡이 50년 安敬善옹
"눈감으면 수십년전 숭어떼 壯觀"



漢江관허어부1호 安敬善씨(67·서울銅雀區鷺梁津本洞467의63)는「漢江개발청사진」이 발표된 22일 온종일 가슴을 두근거렸다. 安씨는 지난50여년을 漢江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한일이라도 漢江에 관한한 자기말을 좀들어줘야할것이라고 느끼고있다. 그래서 安씨를 일부러찾았으나 정작그가 들려준이야기는 예상과는 달리 옛날의 漢江풍경이 전부였다.

『거 기자선생 내1남2녀를 공부시켜준 漢江이야기를 들어보시겠오』 이렇게 말문을 연 安씨의 옛漢江은 신기하다 못해 동화같은 江이었다.

安씨가 漢江에서 고기를 잡기시작한것은 일제 昭和4년인 1930년. 安本敬善이란 이름으로 자망어업을,일제로부터 허가받은게 첫인연이었다.

명주실로 만든 그물로 고기를 잡았으나 배가 내려앉을 정도로 항상 만선이었고 당시 鷺梁津나루터에는 잡은고기를 실어나를 우마차가 항상 대기했었다. 잉어·붕어·메기·뱀장어·상치등 각종 담수어가 그득했고 江상류에는 무리를지어 뛰노는 숭어떼가 장관이었고 5~6월이면 복어떼가 올라왔다.

2톤이나되는 새끼고래가잡혀 黑石洞강변에 비석이 세워졌고 담수어 외에도 뱅어, 공지, 웅어, 농어등의 바다고기가 항상 밀려들어왔다.

安씨는 漢江이 급격히 병들기 시작한것은 5·16혁명 뒤부터라고했다. 요즘엔 그물을 치면 수초는 아예 없고 불그스럽한 실지렁이들이 무성하게 걸려 올라오거나 간간히 걸리는 고기중엔 주둥이가 비뚤어지거나 몸이 휜것이잡혀 소름이 끼친다는 것.

이런 安씨에게 비가 오는 날이면 더 한심스럽다. 상류에 있는 공장들이 비를이용, 폐수를 마구버려 그나마 보이던 붕어, 잉어, 메기까지 자취를감추어 버리기 때문.

漢江과 더불어 살아온 安씨에게는 병든 강을 되살리기위해 자신이 해줄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때문에 하루 하루가 안타깝기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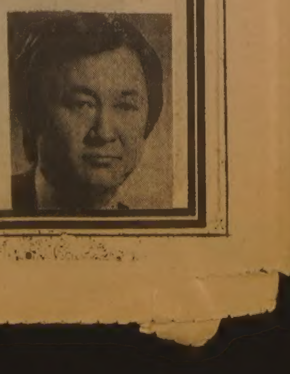
이제 安씨는 어업을 생활의 수단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漢江을 지켜보며 숭어떼가 떼지어 뛰는 옛날의 漢江생각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않고 江에 간다.

인생의 황혼에서 죽었던 漢江을 애처럽게 지켜보는 그에게 『漢江을 물의公園』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의 청사진은 하나의 충격이 아닐수 없으리라. 【鄭在龍기자】

MLS
주식회사 황윤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청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이대환부동산
불황 : 바로 지금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입니다.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1) 주매상 : $8,000이상 건물(1베드룸) 포함.
D.P. $120,000 아스킹 : $210,000
2)주매상 : $10,000이상 아스킹 : $130,000
리스 : 4 + 5 옵숀 10년
*도나스·숍
주매상 : $9,500 렌트 : $3,500 리스 : 3+5+5+5
아스킹 : $310,000 다운페이 : $150,000
*햄버거·숍
(새로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은 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 가능.
다운페이 : $65,000
아스킹 : $169,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월드컵축구 (제10일)

폴란드, 後半 소나기골 5개
主砲라토「名演技」… 페루 따돌려

5-1

【마드리드22日=聯合】폴란드 벨기에 蘇聯도 2차리그에 올랐다.

폴란드는 23일새벽(한국시간)코루냐서 벌어진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1차리그 1조경기에서 페루와 대결, 후반 10분부터 6분동안에 연속3골을 터뜨리며 밀어붙인끝에 5-1로 대승, 1승2무의 기록으로 2차리그에 진출했다. 폴란드는 전반서 골을넣지못했으나 후반10분 스몰라레크의 선제골을 신호로 라토(59분) 보니에크(61분)가 전광석화의 득점을올려 3-0으로 리드를 잡았으며 부홀(68분) 시오레크(77분)가 골을 추가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페루는 경기종료 8분전 기예르모·라·로사가 득점에성공, 연패를 면했다. 폴란드의 主砲인 라토는 이날 1골을 넣고 3골을 어시스트, 대활약했다.

한편 예체에서 벌어진 3조경기에서 벨기에는 헝가리와 맞서 전반28분에 헝가리의 바르가에게 골을허용하여 열세에몰리다가 후반31분 체르니아친스키(폴란드출신 이민선수)의 극적동점골로 1-1 무승부를기록, 2승1무로 2차리그의문을 노크 했다.

6조 소련-스코틀랜드 경기는 피로얼룩진 격렬한 한판이었다. 이경기서 승리하는 팀이 2차리그에 오르기 때문에 필사적인 기세로 맞붙었다. 스코틀랜드는 전반 15분 조·조던의 득점으로 1-0으로 리드했으나 후반 15분 소련의 주장 치바드제에게 골을 빼앗겨 1-1 동점. 경기종료 6분을남겨놓고 소련의 셍겔리아가 골을 넣어 소련의 승리가 굳어지는가했으나 2분후 스코틀랜드의 그래험·사우니스가 극적으로 득점, 2-2무승부가 됐다. 소련은 스코틀랜드와 함께 1승1무1패의 동률을이루었으나 골득실차에서 앞서 2차리그 진출권을 얻었으며 스코틀랜드는 78년아르헨월드컵대회에 이어서또다시 골득실차의열세로탈락하고말았다.

◇제10일 전적
▲1조
폴란드 5(0-0, 5-1)1 페루
(1승2무)(2무1패)
벨기에 1(1-0, 0-1)1 헝가리
(2승1무)(1승1무1패)
▲6조
소련 2(0-1, 2-1)2 스코틀랜드
(1승1무1패)(1승1무1패)

월드컵通信

브라질, 여전히 先頭

◆…영국의 도박사들은 22일현재 여전히 브라질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고 있다.

한 일급도박사들이 내린우승확률을보면 브라질이 11-10으로 1위이고 2위는6-1인 잉글랜드·스페인·西獨, 3위는 아르헨티나로7-1, 4위는 소련으로 16-1, 5위는 20-1인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순이다.

또 다른 도박사팀이 본 우승확률은 브라질이 2-1로 선두이고 서독 9-2, 잉글랜드6-1, 스페인13-2, 아르헨티나 8-1, 벨기에와 소련은 14-1의 승으로 보고있다.

루메니게, 스타否認

◆…서독의 루메니게는 칠레와의 대전서 해트트릭을 기록함으로써 지금까지 54회의 국제 경기에서 30개의 득점을 기록했다.

루메니게는 자신이 스타임을 극구 부인하며 『나는 선수11명중의 일원일 뿐』이라고 겸손.

헝가리 負傷者속출

◆…헝가리와의 극적인 무승부로 2차리그진출의 행운을 잡은 벨기에는 주전선수들의 부상으로 고민.

벨기에의주장인 에릭·게리츠는 헝가리와의경기중 자기 팀 GK와충돌, 부상으로 입원했고 GK 잔·마리·프파프도 다음게임출전이 거의불가능한상태.

오른쪽FB를맡고있는 게리츠는 GK 프파프와 충돌한후에도 계속뛰겠다고 고집했으나 결국15분만에 경기장 밖으로 실려 나갔으며 프파프도 쇄골이골절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레이 촬영을했다.

루메니게"난 11명중1명일뿐"
쿠웨이트紙, 社說로 敗北비난

브라질人코치 비난

◆…쿠웨이트 신문들은 쿠웨이트가 프랑스에 패하자대표팀의 브라질人 코치에 화살. 알·카바스紙는 카를로스·알베르토코치가『공격을회피하고 수비에 치중하는 전략이 쓸모없다는사실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입증됐는데도불구, 이를 강행했다』고지적했다.

또 알·라이 알·암紙는『쿠웨이트의 패배는 비극』이라며『내가 카를로스라면 사임하겠다』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한독자는 편집자에보내는 편지를 통해『카를로스가 전세계에 쿠웨이트를 망신시켰다』고 비난했다.

英팀서 끝내떠날터

◆…아르헨티나의 스타·플레이어 오스발도·아르딜레스는『여러 유럽구단서 자신에 흥미를 갖고있으며 토텐햄·핫스퍼스팀의이적허가가날때까지 기다리겠다』고말했다.

아르딜레스는 조그마한 키에 폭발적인 스태미너로 지난시즌부터 잉글랜드 1부클럽서 활약해온 미드필더.

그는 영국의 포클랜드점령에 격분, 다음시즌에는 영국을떠나 선수생활을 하겠다고 선언한바있다.【外信=綜合】

스페인·월드컵 펠레 리포트 <7>

쿠웨이트, 觀衆호각에 주춤 佛에失點
蘇주심, 正當골 번복, 자격정지不祥事
不分明한判定 확인까지 경기 계속하는건 鐵則

◇프랑스 —쿠웨이트 대전에서 판정번복으로 말썽을 빚은 소련의 스투파르주심. 【바야돌리드(스페인)通信=聯合】

우표수집이 취미라는 소련주심 미로슬라브·스투파르씨. 그가 쿠웨이트의 항의에 마음을 바꾸어 프랑스의 정당한 골을 취소시켰을 때 스투퍼 (멍청한 상태)에 빠져 있었음이 틀림없다.

스투파르씨의 변심은 쿠웨이트축구의 무법성을 정당화시켰다는 점에서 FIFA(세계축구연맹) 징계위원회가 스투파르씨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순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스투파르씨는 정당한골을 취소시킴으로써 쿠웨이트를 경기장에 되돌아오도록 설득, 경기를 재개시켜야한다는 것을 깊이생각했던 것 같다.

스투파르씨. 그러나 나쁜 두가지가 옳은 한가지를 상쇄하지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쿠웨이트는 주심이 정당하게 인정한 프랑스의골에 시비를걸 입장이못되었다. 그들은 관중의 호각소리를 스투파르의 호각으로 착각하고 플레이를 중단하고있을때에 프랑스가 골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억지다.

선수들이 관중의 호각소리에 동요하는것은 흔한일이다.

그러나 선수는 심판의호각이라는 것이 확실할때까지계속플레이를해야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FIFA가 석유부국 쿠웨이트를제대로 징계했느냐하는데 주목하고싶다. 경고와함께 단돈 2만5천 스위스프랑(1만2천달러=8백64만원)의 벌금. 이 벌금액수는 이번월드컵에 출전한팀중 가장 부유한 쿠웨이트에게는 부담이 될수없는것이다. 그들은 스페인본선 진출권을 따고 1인당 13만달러씩의 보너스를 받은 선수들이다.

FIFA의 우유부단함은 다른데서도 잘 나타난다. 쿠웨이트처럼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축구협회장이 스탠드에서 필드까지 달려가는 그런팀을 다시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FIFA는 세이크·파드 쿠웨이트 축구협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고 그의발언에 대해 추가제재조치를 할것이라고 한다. FIFA가 미온적인 제재를한다면 제3세계국가들에 이런 행위는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이런문제를 떠나서 쿠웨이트축구는 고도의 조직력을 보여주었으며,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강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쿠웨이트 대표 선수들은 2년동안 합숙훈련을 했으며 그동안 선수들의 소속팀은 그들의봉사를 받을수 없었다. 이같은 제도는 월드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풍토와 뒷받침이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다른나라가 쿠웨이트처럼 대표선수를 묶어둔다면 각클럽은 파산위기를 겪게될것이며 국내리그는 무너지고 말것이다.

쿠웨이트는 월드컵 예선에앞서 포르투갈에 2개월동안 파견되어 전지훈련을 했다. 이어 모로코와 포르투갈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쿠웨이트축구협회가 창설된것은 1952년이고 FIFA회원이된것은 20년전이다. 등록선수라야 1천5백26명밖에 되지않는다. 쿠웨이트는 찬사를 받으며 스페인에 왔다. 그들의 좋은 이미지가 미숙한 행위와 주심의 무분별로 손상되고 말았다.

쿠웨이트는 이번 대회에서 추방되어 귀국조치를당하지않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다른 경기연맹에서는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도한다. FIFA징계위원회에서도엄격한 처벌이 논의되었다고한다.

만약 엄중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면 쿠웨이트는 잉글랜드와의 게임을 남기고있기때문에 1차리그가 큰 혼란을 빚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FIFA의 처벌이 더더욱 강경했어야했다고 생각한다.

OB, 첫시즌 優勝
프로野球 尹東均 2점홈런… 롯데 눌러

OB베어스가 마침내 프로야구 첫시즌 우승트로피를품에 안았다. OB는 23일 대전구장에서 8회말 33세의노장 尹東均의 통산 4호 좌중월2점홈런으로 승리를 굳혀 롯데 자이언츠를 5-2로 누르고 28승8패를 기록, 남은4게임 전적에 관계없이82년 프로야구전기시즌 단독우승을 차지했다.

OB는 鮮于大泳, 롯데는 千昌浩로 두팀 모두 왼손투수를 기용. OB는 9번 柳志烜의 2타수2안타 2타점 수훈으로 선제리드를잡았다. 롯데는 6번 金成珞이 7회초 좌월 솔로호머로 추격해왔으나 OB의 노장 3번 尹東均이 8회말 좌중월2점호머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해태 타이거즈는 부산경기서 4회초 金城漢, 金奉淵의 연속 홈런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 三美 슈퍼스타즈를 13-4로 대파하고 17승19패를 기록, 4위권을 지켰다.

◇23일전적
◆대전

	1	2	3	4	5	6	7	8	9	계
롯데	0	1	0	0	0	0	1	0	0	2
OB	0	0	1	0	2	0	0	2	×	5

▲홈런=金成珞(7회·롯데) 尹東均(8회·2점·OB)

◆부산

	1	2	3	4	5	6	7	8	9	계
해태	0	0	1	0	3	1	7	1	0	13
삼미	2	2	0	0	0	0	0	0	0	4

▲홈런=金城漢(5회·2점) 金奉淵(5회·이상해태)

◇전기 중간순위 (23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	OB	28	8	·778
②	삼성	25	13	·658
③	MBC	18	18	·500
④	해태	17	19	·472
⑤	롯데	12	25	·324
⑥	삼미	9	26	·257

李德姬, 2회전에 윔블든 테니스

【윔블던(英國)23日AP=聯合】한국의 李德姬는 23일 열린 윔블던·테니스대회 이틀째 여자단식 1회전서 英國의글리니스·콜즈를 4-6, 6-4, 6-1로 누르고 2회전에 진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네번째 映畵化된「우편 배달부」
곧 輸入공개… 官能的 걸작품

1934년 출판된이래 4번째로 영화화 화제작「우편배달부는 벨을 두번 울린다」가 곧 국내에 수입·공개된다.

「우편배달부…」는 신문기자출신 추리소설작가 제임즈·M·케인이 대공황의 바람이 휩쓸고있는 1930년대캘리포니아를배경으로 고속도로변에서 주유소겸 간이식당을 경영하는 늙은 주인의 젊은 부인과 전과자출신인 전달사이에 일어나는 본능과 욕망, 범죄등 어두운 인간속성을 밀도있게 그린 애정극이다.

이 작품은 1939년 프랑스의피에르·주나르감독에 의해 처음영화화된 이래 1942년에는 이탈리아의 특키노·비스콘티감독이, 1946년에는 미국의 데이·카네트 감독이, 그리고 1980년 미국의 보브·라펠슨감독이 영상에 옮기는등 4차례나 영화화됐다.

신작에서 연출을맡은 보브·라펠슨감독은 브라이언드·팔머(캐리), 마틴·스콜세스(택시 드라이버)등과 함께 미국영화의 제7세대로 불리는 영상파감독으로 70년뉴욕비평가그룹 감독상 (작품「파이브·이지·피시스」)을 수상했다.

남녀주인공은「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로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잭·니콜슨과 「올·댓트·재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제시카·렌지가 공연한다.

「우편배달부…」는 작년 여름 미국에서 개봉됐을때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이래 관능적표현의 걸작영화라는 평을 받은 화제작.

뉴욕·타임즈는「지적흥분과 섬적자극을 교묘히 섞은 수작」이라고 평했고, 타임지는「어두운 정열을 상징적으로 승화시킨 감동적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냈었다.【基】

◇「우편배달부는 벨을 두번울린다」의 한장면。

새모토리

모델 林秀貞양 歌手겸업
「잡은손…」등 두曲발표

모델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보이고 있는 CF모델 林秀貞양(22)이 가요「잡은 손 놓지 못해요」「연인들의 이야기」(朴建鎬작사·桂東均작곡)를 발표하고 가수로 자리를 옮겼다.

林양은 H합섬, L식품, K필름, D약품, Y제약, S제약, K콘택트렌즈, B섬유등의 광고모델로 겹치기출연중인 유망주 모델。아름다운 용모와 키 163㎝, 몸무게 45㎏, 몸매 34·23·34인치의 균형잡힌 체격이 모델로 인기를 모으게 한 조건이라고.

『평소 노래를 좋아했지만 가수가되리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젠 모델보다 가수로 전념할 생각예요』

林양은 가수생활이나 모델이 모두 뜻밖의 행운이라고 겸손해한다. 全北井邑에서태어나 井邑여고를 졸업한 林양은 W전자재직중 자사제품인 TV·카세트의 CF모델로 우정출연한것이 계기가돼 모델로 출발했다고 한다。그리고 모델로 TV의 가요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본 작곡가 桂東均씨가 가수가돼보라고 권유. 『그만 넘어가고말았다』는것.

그를 픽업한 桂東均씨는 『신선한 목소리에 변화감이 있어 디스코, 고고, 트로트 어느것이나 무리없이 소화하는데다 금상첨화격으로 미모와 율동미를 갖추고있어 대성이 예견된다』고 평했다。

◇가수林秀貞양

탤런트 金政河양 3년만에 컴백

야구선수 金宇烈씨(32·OB베어스소속)와 결혼뒤 브라운관을 떠났던 MBC탤런트 金政河양(29)이 3년만에 컴백한다. MBC·TV탤런트 5기생으로 출발했던 金政河양은「백치 아다다」「들장미」「신부일기」등에서 개성있는 조역을 맡았었는데 이번엔 MBC·TV의 농촌드라마「전원일기」에서 동네아낙네역을 맡는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 第3譜 21~38 (각5시간·덤5집반)
白(名 人)曺薰鉉〈1勝〉
黑(挑戰者)徐奉洙〈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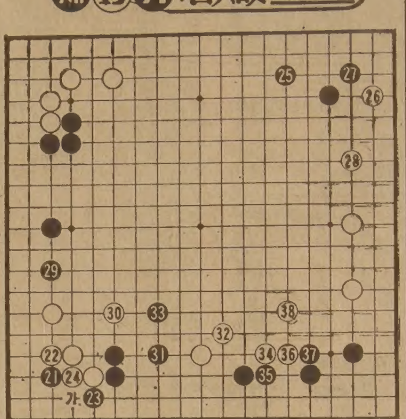
名人戰과 동시에진행중인 王位戰은 2승2패의 동률에서 지난15일에 두어진 제5국을 曺名人이 승리하여 3승2패로 徐王位를 막판에 몰아넣고 말았다. 이와같이 양쪽도전대국을 4、5일간격으로 치르려면 무엇보다 초인적인 체력이 필요할것。새삼 가혹한 승부의 세계를 눈앞에두고 보는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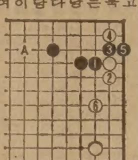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은 양자가 피로의기색도 없이 힘과 슬기를 다하고있다。첫판에비하여 진행이속하지만 이것은결코 體調의 저하때문이아니다。바둑의 양상이 그렇게 전개되어가는 것이다。

黑21에서23까지 黑의뜻대로된 모습이라보고 또 더욱 하변에는 피차간당장이렇다 할 적당한 수단이 없다하여 우상귀를 黑25로 굳혔을때 白26이 민첩했다.

名人의 利敵手

黑27은 다음에 29를 두기위하여 일단 굴복한수이다. 이수로 참고도의 黑1、3은 白4、6이 좋은수로 白「A」가 엄청난데 이것을예방하면 실전보의 黑29에 선행할수 없다. 이때 노타임으로 두어치운 白30이 허울만좋았지 실속을 잃은수라고한다. 이수로는「가」자리를 막아 귀를 보해야 되었는데 보다시피 黑31, 33의 快調를 허용하여 이적행위에 가까웠다는 중론이다. ★棋譜가 일부 중복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구독신청 533-2361

流星의 賊 <415>
李炳注作 李友範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⑱

『장한 일을 했군。그럼 어떻게 알아냈는가』

계남은 감탄을 금치 못해 물었다。

신불의 대답을 요약하면—。

처음 단병(短兵)으로 적진의 화약고를 습격한 의사(義士)들의 이름을 알고자 했는데 그 이름을 알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습격후 그들이 피신한 곳의 흔적을 도무지 알수 없는 점이 이상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원성에서 십리쯤의 산속에 있는 수개의 마을에서 노인들의 행방을 찾아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려 십수인의 노인이 하룻밤사이에 없어졌다는 것이 이상했고, 없어진 것이 공교롭게도 화약고를 습격한 사건이 난 전날 밤이란게 이상했다. 노인들은 모두 의병(義兵)을 자칭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디론가 갔다고 하는데 의병들이 노인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왜 빨리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상했다。

이런 이상한 점을 추궁한 결과 폭파된 화약고 근처에서 왜병의 복색을 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란게 밝혀졌고 의병이라고 자칭한 자들이 왜놈에게 붙은 간인배(奸人輩)들이란게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그 뭇 밖에도 부평 뭣골 진가란 사람 집에서 수원현감 또는 수원판관에게 전달하라고 어느 의병이 두고간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가 이겁니다』

하고 신불이 내놓았다。

그 문서엔 3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이 생명을 도하여 수원성내의 왜적 화약고를 폭발한 공로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덧붙이길, 이 사실을 행재소에 이미 알린바 있으니 지방의 수령으로 부터도 응당 상부에 보고가 있어야 할것이라며 진사 김옥수(進士 金玉秀)의 서명이 있었다。

『그래 신불은 그들을 추적해봤소?』

홍계남이 물었다。

『시일이 없어 그들을 탐색하는 것은 다음날로 미뤘읍니다만』

하고 방바닥에 있는 문서에 나열된 명단의 맨 꼭지의 이름을 짚었다. 이원용이란 이름이었다。

『이 자를 사로잡아 왔읍니다』

신불이 처음으로 득의에 찬 웃음을 웃었다。

『그 자가 괴수인가?』

『괴수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하여간 만만한 놈은 아닙니다. 그 자와 함께 왜놈의 부장(部將)과 붙은 여자도 잡아왔읍니다만 이 여자는 보통의 미색(美色)이 아닙니다』

미색이란 말엔 계남이 얼굴을 찌푸렸다。

『여자를 뭣때문에 잡아 왔을고, 처치가 곤란할 뿐인데』

『아닙니다。홍장군님。무슨 까닭으로 어떻게 왜놈에게 붙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두는 것도 작전상 필요한 일로 아뢰니다。그냥 죽이긴 아깝고, 놓아주긴 괘씸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서 붙들어 왔읍니다. 지금 이리로 끌고 오라고 할까요?』

『그럴 것까지 없소。신공은 대단히 고단할테니 돌아가서 쉬시오。날이 밝거든 다시 의논합시다』

갠 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바람은 자고 눈도 멎고 있었다。삼경이 넘었는지, 신불을 막사 밖에까지 와서 한 홍계남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펴고 차가운 바람을 폐장 가득히 빨아 넣었다。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답 ㉘

『많이 시장했나봐?』

『시장할 때가 지났잖아』

일환이가 팔목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그럼 이게 밤참이 아니라 저녁이란 말이지?』

오목이는 짐짓크게 놀라는 시늉을 했다. 그렇다고 그녀가 처음부터 그게 일환이의 저녁 식사라는 걸 몰랐던건 아니다. 그녀는 일환이와 예전처럼 친해지려면 솔직해져야한다고 조바심하면서도 그게 쉽지않았다. 일환이가 거침없이 큰 하품을 했다.

주인여자가 가게방 문턱에 걸터앉아 졸기시작했다. 방속에서 잠든 아이중의 하나가 이불을 걷어찼다. 머리만 보이던 세아이의 몸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채 잠자고있었다. 저렇게 사는 것도 과연 자립이라는 걸까? 일환이가 꿈꾸는 자립도 고작 저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게 못되리라. 오목이는 이런 객적은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저었다.

『오빠 실은 나 그동안 오빠가 한말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내가 한 말?』

일환이가 졸음이 고인 눈을 껌벅였다.

『역시 오빠 말이 맞았어』

일환이는 뜻하지않게 얻어낸 오목이의 동의에 만족하기보다는 도대체 그의 무슨말이 오목이의 동의를 얻어냈는지 생각나지않아 난처한 얼굴을 했다.

『내가 너한테 뭐랬더라?』

『냉동기술이란 말보다 압가스 기술이란 말이 훨신 멋있어』

오목이는 일환이의 책의 장을 읽으면서 이렇게판정을 부렸다. 아직 다스려지지않은 허영을 예쁜 꼬리처럼 사리고 그녀는 살짝 눈웃음까지쳤다.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보통여자처럼』

『언젠 내가 특별한 여자였나?』

『적어도 나에겐』

『그럼 그건 오빠가 변한거지 어디내가변한거야?』

『말 장난 그만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내가 너한테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했었는지 얘기해봐』

『빈 집이 돼버린 〈오누이의집〉에서 우리가 만났던 일 생각나?』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만난 걸』

『그때 오빠가 그랬잖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구。우리도 이제 우리들의 가족을 가질수있을만한 어른이 됐는데 왜 고아냐구。그뜻을 이제야 알것같아』

『그까짓 소리를 오년동안이나 잊지않고 생각했단 말이니? 정말』

일환이 얼굴에 문득 생기가 돌았다。그러나 잠깐이었다。그의 얼굴에서 마모된진 울퉁불퉁한 윤곽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잘 될것처럼 우쭐대던 생기와 낙관도 함께였다는걸 깨달으면서 오목이는 가슴이 찐했다。

『오년동안이나?』

일환이가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소리로 되뇌이 물었다。

『오년이 그렇게 긴동안은 아냐。우린 아직 젊어 애숭이야』

『하긴 오년전에도 너에게 라면밖에 못사줬고 지금도 라면 먹일 주제밖에 못되니까』

『오빠가 그때 한소리는 틀린 소리였어。우리가 고아를 면하는 길은 우리끼리 가족이돼서 새로운 가족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걸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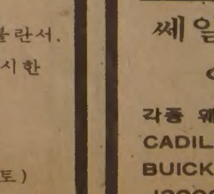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Maximode
ㅇ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챗슨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ㅇ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 낮12-밤12시까지, 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충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낙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경험있는 Shirt 재봉일 하실분 구함.
(Finch & Dufferin 지역)
전화 : 665-83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다른차에서 안나가실때 나와 주세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Metro Bait Co.)
좋은 값으로 대우하며 작업하기에 좋은 지역임.
전화 : 465-2383

햄버거식당 동업자 구함.
8월1일부터 확장계획임. 23 Helen St. Missi.
주중 9:00a.m.~18:00p.m. 전화 : 274-7010 (Mr. You)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18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 . W.

여름학생 1명
영문타자에 -숙한 학생을 1개월기한으로 고용함
근무처: 외환- 행 본점. 전화: 364-2890

한국요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여자분) 구함.
전화 : 537-0 3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직

스토아 매니져.
경험있으며 성실하게 일해 드리겠음.
전화 : 466-4578 Mr. 정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Variety & Grocery Store with 3 Bedroom Apt.
High Park지역. 정원과 차고와 개인차도 있음.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깨끗하고 산뜻한 가게로 지하실이 크고 넓어, 다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대단히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음. 주인이 Canada를 떠나는 관계로 급히 팔고자함. 스탁은 꽉 차 있음.
아스킹 : $139,000+스탁(그중 $50,000은 Cash), 몰개지 : 15%
A.E.LEPAGE (ONT.)LTD.
Mrs. Ryerson 전화 : 537-3431

1) Building for Sale
아랫층 세준 곳에서 $900/m. 수입
이층에는 4 Bed Room Apt. 621 Bathurst St.
2) Corner에 위치한 Building & Business for Sale
주매상 : $3,800(일요일은 쉼) 이층은 3 Bed Room
(Landsdown & Queen St.)
3) Danforth 와 Broadview에 있는 남성 양복점 Sale
아스킹 : $15,000
Canada Permanent Real Estate Co.
전화 : (B) 481-3443 (Paul Kim · Soula St. Jean)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많은 교통량이 있으며, 특이한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에 위치한 최고의 Condition을 구비한 2층 벽돌건물에 딸린 Store와 Apt매매.
8월부터 입주가능함.
1st Mortgage at 15%: $120,000
Cholkan & Co. Ltd., Realtor.
전화 : 763-5555 Doris Burda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좋은 성능의 중고피아노 팝니다.
전화 : 665-8233(낮), 636-1430(저녁)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지역)
1) 주매상 : $7,000 이상, 전물구입 가능.
로타리오 머신 있음(2층에 3 Bed Rm.과 1 Bed Rm.있음)
2) 주매상 : $4,500 (Plaza내에 있음) 전망 좋음.
전화 : 1-528-3986, 1-627-3449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 $4,500 + 로타리오(3 Bed Room포함)
리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전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
주중 9:00a.m.~18:00p.m.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Sandwich Take Out Business for Sale
토론토대학 맞은편 (656½ Spadina Ave.)
관심있으신 분 오셔서 Bernadine을 찾으세요.

Variety Store Special!
위치: Oshawa Main St. 렌트: $700(3 Bed Rm House포함)
넓이: 1250 sq.ft. 주매상: $4,000. 리스: 6년.
가격: $39,000+스탁. 9 door walk-in cooler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Tel: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Duplex House for Sale (Georgetown)
가격 : $56,000. 다운페이 : $6,000. 모개지 Hold해줄수 있음.
Royal City Realty, Ltd. 전화 : 846-0800

Donut Shop 매매 (Downtown 지역)
주매상 : $5,500~$6,000. 순이익 : $6,500이상(M.) 리스 : 17년
아스킹 : $20만. 다운페이 : $9만. 전화 : 977-2299(Mr. 최)

고급 Van.(81년 G.M.C.) 팝니다.(Still Warranty)
내부 완전히 꾸며져 있음(소파, Bed, 탁자, 카페트등)
13,000 Km. 전화 : 862-1623(오전) 694-9399(저녁)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58),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광고문의 ☎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아파트렌트

Sublet (1 Bed Room: 3개월간 Rent도 가함)
$280 + 하이드로(M.) Oldmill Subway에서 T.T.C로 10분거리
전화 : 231-9701 Mrs. Kim (6시반 이후 연락바람)

집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셋방 있음 (1 Bed Rm + Kitchen)
$200/m.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문의시간 : 오후 1:00~오후 9:00(일요일도 가함)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North York Chev-Olds Ltd.
O.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O.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O.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2ND CLASS MAIL NO. 5248